

25일 Market Index			
코스피	2546.30	코스닥	729.69
	(+23.97)		(+3.61)
금리 (미국 9년)	2.305	환율 (원·달러)	1439.80
	(-0.036)		(+4.80)



소비·수출 등 성장 모멘텀 실종 새 정부 첫해부터 마이너스 공포

⑨ 韓경제 제로성장 위기

IMF·피치 등 韓경제전망 줄하향
최상목 “불확실성·하방위험 분명”
정부지출 확대 등 재정확장 시사

대한민국 경제가 기로에 섰다. 경제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유의미하게 커지 지 못 한 채 증가 폭이 0%대에 묶일 가 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분기 이후 각 종 지표의 회복이 더딜 시 연간 국내총 생산(GDP)이 외려 후퇴할 수도 있다. 이는 오는 6월 들어설 새 정부에 막중한 부담을 안긴다. 집권 첫해에 ‘마이너스 (-) 성장률’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남은 5년의 행로가 험난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4면〉

부진을 거듭하던 민간소비는 느닷없 는 계엄 탓에 지난해 말 이후 더 위축됐 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이 올해 초부터 예고돼 움에 따라 기업 수출 전선에 줄곧 초비상이 걸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에 서 1.0%로 지난 22일 크게 내렸고 5월 한 달의 중요도는 커졌다. 추가경정예 산안의 빠른 집행을 비롯해 기준금리 인하 등의 통화정책 완화가 절실히 보 인다. 대선에 이어 비서진·각료 인선

등을 마치면 3분기가 코앞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망을 정확 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 는 이 같은 회의적 전망의 배경과 관련 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구조 적인 흐름에, 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동안 있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26일 이창용 한국은 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 융감독원장과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 현안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경제 상황 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경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한 다’라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 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 다.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오면 받아들 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12 조2000원 규모의 정부발 추경안을 지난 22일 제출받고 심의에 들어갔다.

경제수장의 이 같은 태세 전환은 국 회는 물론 시장에서 환영받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간 건전재정에 유 독 방침을 뒤 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의 임기는 비록 한 달여 남았지 만 정부지출 확대 등의 재정 확장 가능

성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1분기 GDP는 직전분기에 비해 0.2% 줄었다. 한국은행의 1분기 지표 발표 전후로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예측치 하향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8일 0.9%에서 0.7% 로 하향한 데 이어 최근 다시 0.5%로 더 내렸다. 불과 2~3주 만에 0.4%포인트(p)나 낮춰 잡은 것이다. 씨티은행도 종전에 제시한 0.8%에서 0.6%로 하향 조정했다.

씨티은행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은 미 국의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 음에도, 국내 정치적 교착 상태 속에서 당사 및 블룸버그 컨센서스(0.1%)를 크게 하회하는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 집행 등에 따 른 회복 가능성은 높게 봤다. 그는 “보 다 강력한 확장적 정책 조합을 전제로 할 경우,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본 격화되더라도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견조한 분기별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달 중순 종전의 1.3%에서 1.0%로 0.3%p 내렸 다. 또 스탠다드차타드와 골드만삭스 등의 IB도 올해 한국 성장률이 1% 선 에 겨우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6·3 대선 선봉에 “위기 넘는 준비된 대통령”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 확정 “김경수·김동연과 원팀으로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김경수·김동연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고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어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이 후보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에서 ‘대권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연 후 충청권·영남권·호남권·수도권·강원·제주의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최종 대선 후보로 이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선에서 당원 45.16%, 국민 선거인단(여론조사)에서는 44.60%를 얻어 총 89.77%로 1위를 차지했다. 합동연설회장을 채운 1만5000여명의 권리당원·대의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 후보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오는 6월 3일 인수위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며 “당선자는 당선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서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왔다”며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재명과 함께 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최종 선출 후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극한의 절망과 환란 속에서조차 빛을 찾아 희망을 만들어온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대로 이 땅 위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공평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제1야당의 당대표로 정부·여당과 첨예하게 각을 세웠은 이 후보는 각종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에 직면했던 20대 대선 때보다 상황이 훨씬 수월하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m-커버스토리

“좋아할 것만 보여준다”… 편향·중독 불러

AI 추천 알고리즘의 함정

고영향 AI, 규제 법적장치 미비
저연령·고령 문해력 부재 심화
극우·극좌 등 사회갈등 부추겨

‘개인화’ ‘이용자 친화’로 포장된 인공지능(AI) 추천 알고리즘이 전 연령층에서 온라인 중독을 일으키고 있다. 미디어 플랫폼, SNS, 쇼핑 서비스 등에서 활용되는 AI 알고리즘은 편향된 검색 결과만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며 ‘필터버블(Filter Bubble, 특정 성향 강화)’을 일으킨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접하는 구조 속에서 이용자는 점점 중독에 취약해진다.

2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AI·IT 업계를 중심으로



‘필터버블(Filter Bubble)’은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만 AI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공돼 다른 관점에 노출되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AI 생성 이미지

로 AI 추천 알고리즘을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법·제도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천 기술이 심리에 긍·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IT 업계 관계자 A씨는 “AI 추천은 구매 상품이나 시청 콘텐츠를 반복 노출시켜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지우지 않으면 견고한 버블에 갇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우·극좌 유튜브를 통한 갈등 심화와 돈 음모론 확산 사례를 예로 들었다.

현재 AI 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규제하는 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네이버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구글과 유튜브 등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틈에서 저연령층과 고령층의 AI 리터러시(문해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AI 추천 알고리즘의 부작용은 청소년 범죄에서도 드러난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메트로 韓줄뉴스



▲홍준표 “최종후보 되면 한덕수와 단일화 토론·원샷 경선할 것”
▲한동훈 “경선 토론에 10% 힘만 써…李예겐 200% 쏟아 박살 내겠다”
／사진 뉴시스

▲최상목, 무디스 만나 “韓 국가시스템 질서 있게 운영 중”… IMF 역할 강조
▲안철수 “한 대행 출마하면 경선으로 최종 후보 뽑아야…입당이 좋은 길”

▲이준석 “이공계 젊은 리더십 절실”… 유권자에 손편지 10만부 발송
▲전쟁기념사업회, KWO 나지포럼 마쳐…러·우 종전협상 교훈 모색

“관세인상 영향 2분기부터… 美 공장 건립은 마지막 수단”

조주완 LG전자 CEO

“운영효율화로 관세 최대한 수용
감내 어려울땐 생산지 변경이나
가격 인상 등 순차적으로 대응”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필요 시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미국 현지 공장 증설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조 CEO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전기·정보공학부 대상 특별 강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관세 인상 폭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미국향 가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로 (실적이) 악화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관세 정책 시행 전 제품을 미리 사두는) ‘폴인 효과’는 1분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조주완 LG전자 CEO가 지난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제1공학관에서 전기·정보공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LG전자

설명했다.

제품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며 “운영 효율화나 재고 순환 등을 통해 (관세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 인상 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CEO의 발언은 10% 수준의 기본 관세는 운영 효율화와 재고 순환 등 내재화된 역량을 통해 감내할 수 있지만, 관세 인상 폭이 커질 경우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LG전자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멕시코에서는

냉장고·조리기기 등 생활가전과 TV를, 베트남에서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LG전자는 상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 현지 생산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활용, 가격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는

유예했지만, 전 세계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조 CEO는 생산지 변경이나 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 기지 건립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생산지 변경이나 가격 인상 등 순차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4일 열린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도 “생산지 최적화 측면에서 관세 인상 회피가 가능한 멕시코, 미국 생산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윙 생산 체제를 활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LG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조7398억원, 영업이익 1조2591억원을 기록했다. 조 CEO의 발언처럼 글로벌 통상 정책 변화가 본격화하는 2분기에는 관세 영향 등으로 실적이 둔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韓 헌법·법률 따라 질서있게 국정운영”

최상목 부총리, 美 무디스 총괄 면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방미 기간 중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만나,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무디스의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면담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노력 등을 설명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9일 화상 면담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계엄 이후 파면·대선 등의 절차가 일련의 질서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무디스에 전했다.

무디스 측은 최 부총리의 설명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디론 글로벌총괄은 또 재정 기조 및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한미 간 통상협정의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2일 출국한 바 있다. 방미 기간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기구 고위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동하고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지난 24일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장관, 25일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제·생산성 담당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과 면담하고, 다자간 무역체제 지속 필요성,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美·中 갈등에 韓 기업 53% 공급망 악화”

무협, 韓기업 공급망 리스크

수출 제조기업의 절반이상이 미국의 첨단기술 대중국 수출제한과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 국제협력 확대,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추진, 기업 보호 장치 마련 등 종합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은 ‘트럼프 2기,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책 수립 2.4%
韓기업, 양국 무역제재 애로사항
‘환율 변동’ 원재재값 상승 64%
조달·수출처 다변화 전략 등 제안

최근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칙(FDI PR)을 통해 자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고 있다. 중국 역시 지난 2024년 12월 제3국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이중용도품목의 역의적용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며 지난 3월에는 외국 기업이 미국 제재에 협조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제3국 기업 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단산업 활용도가 높은 핵심 광물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극히 높은 상황에서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민간과 공공의 비축 물량 확대를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수출허가 지연과 통제 강화가 반복된다면 구조적 공급망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 광물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때

우 높은데 산화텅스텐(80.4%), 탄화텅스텐(91.4%), 몰리브덴 괴(99.7%), 희토류 화합물(61.1%), 희토류 금속(79.8%)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중국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기준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 제조기업 대상으로 지난 2월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인 53.4%가 전년 대비 공급망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공급망 위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한 기업은 2.4%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51.8%)은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기업들이 추진 중인 주요 대응 전략으로는 ‘수급처 다변화 모색(64.7%)’,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42.6%)’ 등이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양국의 무역제재에 대한 애로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63.4%)’을 가장 먼저 꼽았으며 ‘원자재·중간재수급(42.4%)’, ‘중국 수출통제에 따른 통관 지연(2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으로는 ‘정책금융 확대(60.0%)’, ‘수급처 다변화 지원(42.3%)’ 등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설문은 복수응답을 허용했다.

보고서는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조달처·수출처 다변화 등 수급처 다변화 전략 강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G2G 자원 협력 확대 ▲양국 제재 충돌 대비한 기업 보호 장치 마련 ▲리스크 기업에 대한 우선적 정책금융 확대 등 4가지 전략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 진실 선임연구원은 “미중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원가 상승과 수급 단절 가능성이 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수출처 및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7월 패키지 목표, 관세면제 협의 진행”

안덕근 산업장관

조속한 시일내 한미 실무협의 하기로
관세·경제안보·통화정책 등 4개 주제

한미 양국이 미측의 상호관세와 관련한 협의를 3개월 유예기간 내 이어가기로 했다. 상호관세를 포함해 품목별 관세 등 일체의 관세 조치 면제를 위한 협의도 조만간 개시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지난 2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정’에 이어 통상 당국간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간 실무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장관(사진)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면담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와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



다”며 “회담에서 한미 양국 간의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8일 까지의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협의 주제는 관세와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협력, 통화정책 등 4가지로 모아졌다. 안 장관은 “(협의 분야와 방식은) 귀국 이후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우리측의 관세 면제 요청과 함께 미국측의 관심사항도 다뤄졌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에는 미측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산업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함께 참석했다”며 “범부처 차원의 현황을 공유하며 후속 협의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이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며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미 협의에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아울러 오는 5월 15일~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별도의 고위급 통상협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지난 26일 통상협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을 만나 “협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관세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줄라이 패키지’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첨단기술에서 일상 속 도구로… ‘리터러시’ 역량 중요해져

〈문해력〉

AI 대중화

대화·검색·제작 등 활용성 높아져
환각 등 불안정… 사용자 해석 관건
“韓, 리터러시 정책·교육 병행돼야”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며 AI 리터러시(AI Literacy, 문해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후 전세계는 한순간에 기술 박행을 경험했다. 이전까지는 전문가만이 접근할 수 있던 AI 기술이 이제는 누구나 채팅하듯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AI는 전문가의 전유물에서 대중의 일상 도구로 자리잡았다. 산업계도 빠른 AI 전환이 생존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AI 도입에 서둘렀다.

이처럼 AI의 발전과 대중화는 빨라지고 있지만 AI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디다. 초중고에서의 AI 리터러시와 관련한 내용이 올해 도입됐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관련 정책 등은 여전히 일천하다.

2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달 MIT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연구소(CSAIL)이 온라인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주요 AI모델들 모두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중심이 되는 가치관과 선호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관습적,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인간의 개입이 쉽지 않다는 것.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은 AI 모델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신념과 선호를 가진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신, AI는 되는데로 말을 막던지는 모방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적절하지 않거나 틀린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AI 리터러시는 더욱 중요해졌다.

AI 리터러시란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는다. AI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는지, 그 한계와 위험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포괄한다.

‘개입화’나 ‘이용자 친화성’을 내세워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대화형 AI 모델이 실존하지 않는 사실이나 맥락을 벗어난 답변을 만들어내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 등, AI가 작동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AI 기술 활용 이미지

중요성과 달리 현실은 다소 엇박자를 타고 있다. AI 활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허위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진다.

픽플리가 10대 이상 소비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7%가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해봤다”고 응답했다. AI 경험자의 79.2%는 검색 및 정보 탐색 목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생성형 AI의 경우 응답자의 84.6%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 중에서는 챗GPT가 93.9%로 압도적인 사용 경험을 보였다.

사적 영역에서의 AI 활용도 두드러진다. ‘페르소나 AI’로 불리는 AI 친구·연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감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타(Zeta)’를 개발한 기업 스캐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타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약 70만명에 달하며 이용자들이 AI와 주고받은 대화 건수는 한 달간 14억9000만건을 기록했다. 사용자들의 평균 주간 이용 시간이 9.5시간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 활용은 늘었지만, 신뢰나 판단 능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AXA가 발표한 ‘AXA 미래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3000명과 일반 대중 2만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는 80%, 대중은 78% 스스로 AI 관련 허위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정작 타인에 대한 정보 분별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25%, 대중은 40%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AI에 친숙할수록 AI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현상도 나왔다. 논문 ‘생성형 AI에 대한 감성요인이 AI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AI 리터러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AI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고, 활용이 많지 않은 40대였다.

AI 친숙성이 높은 집단 역시 AI 리터러시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불안감과 이용빈도가 낮은 집단의 A

I 리터러시가 더 높게 나타난 만큼, AI에 능숙하고 친밀하다고 해서 AI 리터러시가 높은 것은 아니란 결론이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AI의 활용이 늘어났지만 정작 AI 리터러시는 떨어지는 현상은 생성형 AI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관계있다. 생성형 AI는 예상치 못한 순간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이 기술을 이해할 기회가 없었다. 이는 곧 AI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 또는 거부감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더해 개개인이 직접 AI 교육을 찾아 사설기관에서 들어야 한다는 점 또한 AI 리터러시의 하향 평준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선 AI 리터러시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현정 연구원은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는 동기부여가 강하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라며 “AI 리터러시 교육이

단순히 기술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프라이버시 보호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전략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지난 25일 ‘인공지능민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민간기업으로서 느낀 정책 발전 필요성을 말하며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IT 생태계를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지만 국민의 AI 이해 수준은 AI 시대에 오히려 낮아졌다”며 “지브리 생성처럼 잠깐의 유행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활용과 이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AI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리터러시가 우선”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리터러시 정책과 교육 체계가 병행돼야 진정한 AI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기술 접근성 높아지며 악용 가능성도 커져”

》1면 ‘좋아할 것만 보여준다’서 계속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에서 10대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3.6%에 달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정숙 실장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기술 접근성과 함께 범죄 접근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정 키워드를 통해 불건전 콘텐츠로 이어지는 경로가 손쉽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고령층은 정보 신뢰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려다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IT 업계 관계자 B씨는 “사실상 AI 추천 알고리즘에서 벗어날 방법은 인터넷을 하지 않는 것뿐”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AI 리터러시 확산과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우리의
행복이

일상이
되도록

더 깨끗한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갈 우리를 위해,
더 투명한 세상을 위해,
한국중부발전이 이끌어 나가는 ESG 경영.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회사가 되겠습니다.

THINK TOMORROW,
ESG LEADER!

KOMIPO
한국중부발전



수소 밸류체인 구축 확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발전사 최대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구례, 봉화)



해의 운영사업장
발전5사 중 1위
(11개소)



아세안국가 전력시장 선점을 위한
TEAM KOMIPO 해외동반진출
(9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고등급 달성)



삼각축이 흔들린다… 실물경제 깊은 ‘침체 신호’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한국 경제를 이끄는 성장 엔진인 ‘소비·투자·수출’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올 1월까지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선 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1분기를 지나면서 그 수치는 0%대로 수직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0.2%)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에 제대로 반등하지도 못했다. 사실상 1년째 ‘0’ 성장의 울가미에 갇힌 경제 상황속에서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들의 위기감은 극도로 치솟고 있다.

◆성장동력 직격탄 맞은 산업계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국내 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쇼크를 맞은 뒤 또다시 뒷걸음질했다. 바닥까지 꺼진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장률 1년째 0%대, 반등동력 잃어
산업 생산·소비 지표 동반 약세 지속
수출 부진에 투자 위축까지 ‘가속화’
실물경제 전반 얼어붙으며 활력 저하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차·기아는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로 실적 하락세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내수에서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한 16만6360대를 판매했다. 국내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업계에서는 연초부터 다양한 신차를 내놓은 상황에서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역풍을 맞아 아쉬운 성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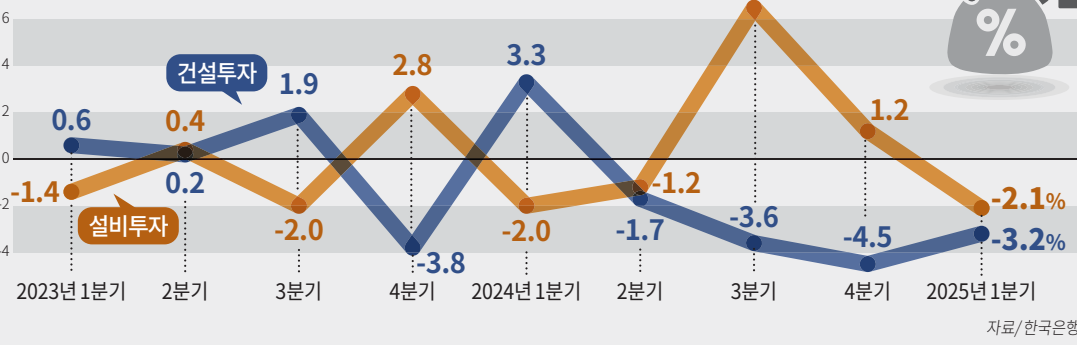
기아는 1962년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래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지만 내수에서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기아는 올해 1분기 내수에서 2.3% 줄어든 13만4412대를 팔았다. 같은 기간 한국GM(캐딜락 제외)은 내수 시장에서 40.6% 감소한 4108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KG모빌리티도 내수 실적은 좋지 않다. 올 1분기 내수 판매는 33% 쪼그라든 8184대에 그쳤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전자업체들도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1분기 잠정실적에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5% 감소했다.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DX, DS 등 구체적인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가전 등에서 내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지출 중 투자 증감 추이

단위: %, 전기 대비



경기침체는 물론 경쟁사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LG전자도 지난 24일 올 1분기 경영실적으로 매출 22조7398억원, 영업이익 1조25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LG전자는 해외 시장 공략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전 구동 사업이 2년만에 매출 2조원을 넘어서자 태국·말레이시아·대만에서 올해는 인도와 실가포르·홍콩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업계는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재 수입 증가로 내수 투자를 축소하는 한편 제철소 설비 중단과 폐쇄를 병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포항 제철소 1제강공장, 11월에는 1선제강제 공장의 폐쇄를 결정했다. 현대제철도 가동률이 떨어진 포항 2공장을 지난해 말 축소 가동하고 4월 한 달간 인천공장의 철근 제품 생산라인 운영을 중단했다. 국내 1, 2위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내수침체를 피해 해외 투자와 설비 이전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그룹은 주력 사업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가 모두 부침을 겪는 상황에서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일부 사업은 축소하거나 계획을 연기하는 등 사업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소비 침체에 유통가 줄도산 위기…서민 부담 가중

극심한 경제 침체에 가성비와 실속을 중시하는 ‘불황형 소비’가 식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유통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75로, 전 분기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실물 경기의 깊은 침체를 방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3.6%, 3.0% 상승했다. 침체 경기에 소비물가는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펼쳐지면서 소비자들은 외식 횟수와 반찬 수를 줄이는 등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도 저가 상품과 자체 브랜드(PB) 강화에 나서며 보수적 대응중이다.

소비 위축은 유통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미정산 사태로 1조 5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명품 온라인 쇼핑몰 발란도 최근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오프라인 유통 강자 홈플러스는 점포 임대료와 금융비용 증가로 버티지 못하고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기업 그룹들도 예외는 아니다. 롯데그룹은 유통성 위기설 이후 비핵심 사업 매각에 나섰고, 애경그룹도 애경산업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역성장 경기에 유통업 침체, 투자 위축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는 수요-공급-투자 삼각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월 1일부터 주요 식음료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다. 코카콜라음료는 스프라이트, 미닛메이드, 환타 등의 출고가를 평균 5.5% 인상하며, 매일유업도 컵커피와 치즈, 두유 제품 출고가를 평균 8.9% 올릴 예정이다. hy(구 한국야쿠르트)는 야쿠르트 라이트 가격을, 하림은 닭가슴살 제품 가격을 각각 인상한다. 저가 상품을 선호하는 흐름 속에서도, ‘생활물가’ 항목들의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서민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가격 인상에도 식음료업계의 실적 전망은 밝지 않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이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12.8% 감소할 전망이다. 롯데푸드 역시 매출은 소폭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32.9% 급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팜유와 코코아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은 지난해 대비 50% 이상 급등했고, 환율도 6개월째 1400원대에서 등락하며 수입 비용을 가중하고 있다.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유통재고 소진 이후에야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고물가와 소비 둔화, 그리고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는 더욱 깊은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고환율 등 불확실성에 기업투자도 위축
기업의 투자도 줄었다. 고(高)금리와 고환율에 원자재 가격 인상과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투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건설투자는 올해 1분기 기준 3.2%(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고금리, 고환율은 원자재 가격을 높였고, 그 해 하반기 진행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은 수주·허가·착공을 어렵게 했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당한데다 구조조정과 미분양 등이 이어지면서 건설투자가 위축됐다는 지적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 2국장은 “건설투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의 주된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장기 고금리상황,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미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경기 부진 등의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의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기업의 투자계획도 미루거나 취소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해 12월 365.14를 기록했다. 10년 전(107.76) 대비 3.4배로 커졌고, 한일무역분쟁이 격화했던 2019년 12월(538.2) 이후 60개월 만의 최고치다.

고물가·고환율 여파, 불확실성 심화
기업 투자심리 위축, 소비감소 본격화
유통업계 연쇄 부실, 내수 침체 악화
장기 저성장 고착화 우려 커지는 상황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스콧 베이커·니콜라스 블룸·스티븐 데이비스 교수 등 석학 3명이 공동 개발한 지표로 국가별 주요 언론 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관련 단어 빈도를 집계해 계산한다.

대한상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10포인트 증가하면 약 6개월 뒤 국내 설비투자가 8.7% 감소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 지난 12월 치솟았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감소는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수 있고, 지속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업의 투자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1분기 GDP성장률이 대내외 불확실성확대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폭설·한파·산불 등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며 “특히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간·공공·건축·토목 전 분야에 걸쳐 부진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신원선·나유리 기자 ysw@metroseoul.co.kr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제 꿈은, 부스바 시장
세계 1등입니다”

부스바 한 길만 40여년,
꿈을 접어야 했던 적도 있었죠
모든 희망이 꿈인 그때,
절 믿어준 건 국민은행뿐이었습니다
그 자원 덕분에 고려금속은 위기를 넘기고
국내 최고의 부스바 기업으로 성장했죠.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죠?
세계위라는 더 큰 꿈 역시, 반드시 아룰 거라 믿습니다.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KB금융그룹이 든든한 금융으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asic
KB금융그룹

| 고려금속공업 대표 이영모 | *고려금속공업은 전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구리 부품인 부스바 생산 1위 기업입니다

*b KB금융그룹

이재명, ‘아웃사이드’에서 역대 최대 黨 장악력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킨텍스에서 진행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李,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 선출

당원과의 일체감에 압도적 지지율
지난 대선경선·지방선거서 ‘잡음’
당과 결합하지 못했다는 반응 나와
尹 비상계엄 이후 ‘일체감’ 강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것은 ‘당원과의 일체감’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진

행된 대선 경선에서 89.77%의 압도적 득표율을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를 넘어 ‘아웃사이드’로 통했다. 경기 성남에서 변호사 및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다 2005년 8월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에 입당한 이 후보는 당시 정동영계·정세균계 등으로 분류됐지만 한동안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았다.

이후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후보는 연속으로 재선에 성공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가했다. 기초 단체장의 대선 경선 출마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강했

지만, 이 후보는 특유의 ‘사이다’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고, 경선 당시 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경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당시 최종 후보로 선출된 문 전 대통령에게 ‘집에 가라’고 하거나 다른 당 후보인 안철수를 연호했고, 이 모습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이 후보는 훗날 당시 자신의 행보를 두고 “아, 좀 살살할 걸 그랬다”고 농담처럼 후회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재명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는데 경선 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다. 당내에서는 이를

발미삼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인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찍겠다는 지지자들도 일부 나올 정도였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 나섰을 때도, 당과 완전히 결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작가는 이를 두고 “이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른 유형의 리더라서,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낯설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결국 이렇게 발생한 이격은 이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0.73%포인트차이로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원내에 입성했고, 대표직을 연임하는 등 당내 ‘주류’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 후보는 점점 당

원들과의 ‘일체감’을 형성해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이 후보는 국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회로 모여주시라.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 당원들과 이 후보의 ‘일체감’은 더욱 강해졌다.

이에 ‘압도적 정권교체·내란 종식을 위한 당원들의 열망’이 이 후보의 압도적 득표율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한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이 후보가 고난을 겪었고, 함께 고락을 겪은 세월이 문재인 전 대통령만큼 길어졌다”며 “당원들에게도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어냈다는 ‘동지’라는 의식이 생겼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한덕수, 금주 출마여부 결정… 경쟁력은 ‘글썄’ 국민의힘 2차경선… 대권주자들 행보 강화

내일 29일 거부권 행사 후 사퇴 예상
원샷경선보다 단일화 가능성 높아
후보 간 신경전 등 효과 반감될 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오는 30일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기대하는 보수 진영에는 희소식이지만,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출마선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출마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한 권한대행이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4일 전에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정치권이나 관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남은 일을 부탁한 후에 30일에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관건은 한 권한대행의 사퇴 후 행보다. 구(舊) 여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의 동의를 얻어 ‘원샷 경선’을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경우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민심(일반 여론조사) 50%, 당심(당원투표) 50%’이라는 룰이 있으니, 경선 규정을 두고 갈등을 빚을 이유는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또,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후 ‘반명(반이재명) 그랜드 텐트’를 꾸리기 위한 범보수 단일화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구 민주계 출신 인사들도 합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한 권한대행의 국민의힘 입당 후 ‘원샷 경선’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큰 정당의 경선을 치른 최종 후보에게 당내 경선을 한번 더 치르라는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다. 거기에는 한 권한대행은 이달 초부터 시작된 경선에 참여한 게 아니라, 2번의 컷오프를 거친 최종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은 ‘부전승’을 한 셈이다. 또 당원들의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범보수 단일화 경선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단일화 경선 규칙을 두고 각 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져, 단일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실제로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22~24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1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대선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치면 23%였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해당 여론조사에서 6%를 받았다.

해당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4인의 후보에 한 권한대행까지 합친 지지율은 29%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38%로, 5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 후보에 미치지 못한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려면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만 한 권한대행의 출마여부는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를 2인으로 압축하는 3차 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당원투표 및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내에서도 단일화를 원하는 여론이 있기에, 각 후보들은 ‘캐스팅 보터’가 된 한 권한대행 지지자들에게 구애하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6.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당원투표·국민 여론조사 진행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2차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4명의 대선 주자들은 현장 행보를 강화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설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등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7~28일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해당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지 득표율 1~2위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종 후보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협상 또는 범

보수 진영의 빅텐트를 구성해야 하는 경선 주자들은 관련 입장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 시킬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후보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최종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토론 두번 하고 원샷 국민경선을 하겠다”며 “그게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길이라면 흔쾌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反이재명’ 빅텐트·공직선거법 판결 ‘변수’

>> 1면 ‘이재명, 다시 대권 도전…’서 계속

민주당도 친명(친이재명)계가 당의 주류로 올라섰고, 원내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진보 진영이 광범위한 결집을 이뤄낼 전망이다.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순풍이 불 것이라는 민주당의 전망과는 다르게 일각에선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뚝뚝 뭉친 보수 진영이 성공적으로 빅텐트를 구성하고 강성 보수와 중도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20대 대선과 같은 호각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경선 후 최종 단일화’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또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지도 눈길을 끈다. 이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지 22일만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합의기일을 잡으며 선고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박태홍 기자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두근두근

두근두근 프로젝트 #1
아이의 미래를
가슴 뛰게 하는 금융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웃음과 행복만 가득한 세상을 위해

BNK금융그룹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 그대로
함께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씬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퇴직연금 수익률 반토막… ‘기금형’ 도입 논의 재부상

금리 인하에 정기에금 금리 하락
무역전쟁 여파 비보장형 수익 뚝
DC·IRP형 중심 하락폭 두드러져

고용부 기금형 도입 자문단 출범
수익률·위험관리 효율성 기대

국내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급락했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원리금 보장형을 구성하는 정기에금 수익률이 하락한 가운데 ‘무역전쟁’ 여파에 원리금 비보장형의 주축이 되는 국내·외 증시도 급락해서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재부상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국내 42개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은행·증권·보험)의 올해 1분기 기준 연간 수익률 평균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3.63%(DB형 3.66%, DC형 3.65%, 개인형 IRP 3.58%),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이 3.01%(DB형 4.46%, DC형 2.35%, 개인형 IRP 2.21%)를 기록했다.

반년 전인 2024년 3분기의 수익률 평



은행, 증권, 보험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스시스

균(보장형 3.87%, 비보장형 10.80%)과 비교하면 원리금 보장형과 비보장형 수익률 모두 하락했다. 비보장형 가운데서는 특히 DC형(9.79%p ↓)과 개인형 IRP(9.72%p ↓)가 DB형(4.67%p ↓)보다 하락이 컸다. DC형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만큼, 고위험 상품의 선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이 하락한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권의 정기에금 금리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금리 인하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은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 여파로 국내·외 증시가 침

체하면서 급락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특정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고, 3월에는 전 세계에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나스닥은 1분기 말을 기준으로 연초 대비 10.42% 하락했고, 관련된 ETF(증시 추종 펀드)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나스닥 관련 ETF는 지난해 퇴직연금 시장에서 특히 수요가 많았던 상품이다. 이달 들어 트럼프가 상호관세 정책을 본격화했고, 수출 감소 전망에 국내 증시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익률 제고는 더 요원해졌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금형은 가입자의 자산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이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전문가가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표적인 기금형 운용기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자문단을 공식 출범해 제도 논의를 본격화 했다. 이달 들어서는 박민규 민주당 의원(관악구 갑)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지난해 푸른씨앗의 운용 수익률은 7%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제도화한다면 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부분에서도 효율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형 지배구조는 공격적 운용을 통해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라 위험조정수익의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근로자연금자산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심층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건설사, 1분기 실적 ‘바닥론’…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

GS건설·DL이앤씨·HDC현산
영업의 전년동기 대비 늘었지만
현대·대우건설 등은 감소 예상

건설사들의 1분기 어닝 시즌(실적발표 기간)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남아있는 저수익 공사 현장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1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바닥을 확인했다는 분위기가.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HDC현대산업개발을 시작으로 오는 29일 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 30일에 삼성물산·GS건설 등이 1분기 성적표를 공개한다.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에 못 미쳤지만 건설사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작년 실적에 따라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GS건설과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장윤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실적 성장의 방향성은 유효하지만 1분기 기대치는 다소 높았다”며 “주택사업에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착공한 고원가 현장의 준공이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매출 감소와 추가 비용 반영에 따른 이익 하향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5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9057억원으로 5.2% 감소했다. 고원가의 지식산업센터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건축부문 원가율이 134.1%를 기록했지만 이번 분기를 마지막으로 대부분 준공되고, 자재주택부문 원가율은 선방했다. 작년 4분기와 이번 1분기 자체사업부문의 마진을 감안하면 서울원 아이파크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DL이앤씨와 GS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873억원, 850억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43.3%, 20.6% 증가한

수치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897억원, 8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4%,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건설은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관련 비용은 1분기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련 LS증권 연구원은 “높은 건자재 가격을 공사비에 전이 시키지 못해 마진이 좋지 못했던 2021년 당시 착공한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지난 분기부터 실적이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이번 1분기에 급격한 악성 현장들이 대부분 준공되면

서 잔고에서 사라져 1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좋은 흐름이 연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지표 역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가 둔화됐고, 도급중액 환경도 여의치 않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수도권 준공도 감소하고 착공도 부진한 만큼 공급 감소에 따라 미분양 물량의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양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실수요자(주택자) 중심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 시장의 부동산 시장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유상옵션 많아 분상제 메리트 퇴색”

부동산 현장 르포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역세권에 생활 인프라도 풍부
유상옵션·마감재 품질 아쉬워

“기대하고 왔는데 기본 마감재가 생각보다 아쉬워 고민이 됩니다.”

최근 방문한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견본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세웠지만 유상옵션 구성과 기본 마감재 품질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경기도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90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584세대 ▲84㎡B 138세대 ▲84㎡C 178세대다. 이번 분청약에서는 사전공급을 제외한 466세

대가 일반에 공급된다.

단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예정 노선인 의왕시청역(가칭)과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다.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인덕원역 환승 예정)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경수대로, 의왕나들목(IC) 등 주요 도로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의왕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 상업용지, 이마트, 롯데아울렛 등이 인근에 자리한다. 평촌·인덕원 일대 대형 쇼핑시설과 의료시설 접근성도 갖췄다. 고천2 초등학교(2026년 개교 예정)와 인근 명문 학군, 평촌 학원가로의 접근성도 장점이다. 주거환경도 강조됐다. 단지 대지면적은 약 5만2642㎡로 넓은 동간 거리와 안양천 수변 산책로, 오봉산 조망 등을 확보했다. 전용 84㎡A·B 타입은 4베이(BAY·전면을 향한 방이나 거실의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견본주택 내 모형도.

/전지원 기자

수) 3룸, 84㎡C 타입은 3베이 4룸 구조로 설계됐다. 맞통풍 구조와 팬트리, 드레스룸, 현관창고 등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GX룸,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이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라며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의왕시에 거주하는 이모(58)씨는 “실제 유닛을 보니 기본 사양에서 유상

옵션을 거의 다 선택해야 견본주택 처럼 꾸밀 수 있다”며 “옵션까지 포함하면 1억원 가까이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 가격 메리트가 퇴색되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견본주택에 전시된 유닛은 유상옵션이 적용된 고급형 모델이었다. 추가 유상옵션 항목으로는 현관 중문,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복도·거실 아트월 등이 포함돼 있다. 분양가는 ▲84㎡A 6억4520만~7억2740만원 ▲84㎡B 6억4160만~7억2850만원 ▲84㎡C 6억4050만~7억274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전지원 기자 jiw13@

분양 캘린더

청계노르웨이숲 등 12곳서 6712가구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6712가구(일반분양 365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중구 황학동 ‘청계노르웨이숲’,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7단지’, 경기 의왕시 고천동 ‘제일풍경채의왕고천(분청약)’ 등 12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수원시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Ⅱ’ 1곳에서 개관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익 1BL 도시개발구역 공동4BL에 들어서는 ‘시티오씨엘7단지’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면적 59~137㎡, 총 1453가구 규모다. /전지원 기자

효성화학, 체질 개선 본격화… 자산매각·PP사업 ‘투트랙’

〈폴리프로필렌〉

베트남법인 지분 49% 매각
3153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업계, 추가 구조조정 전망도

효성화학이 업황 부진 탈피를 위해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베트남 법인의 실적 부진 장기화로 촉발된 위기 속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며 거래 재개와 재무 상태 개선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비핵심 자산 정리’와 ‘본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150억원, 영업손실 59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36%, 영업이익은 44.5%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가운데 효성화학은 베트남 법인에 대한 대규모 채무보증인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다.



효성화학 삼불화질소(NF3) 생산 공장.

/효성

효성화학은 최근 베트남 법인인 효성비나케미칼의 지분 49%를 3964억원에 매각하는 동시에 315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회사 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채무상환 자금 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효성화학은 베트남법인을 완전히 매

각하는 것이 아닌 지배력은 유지한 채 일부 자산만 유동화하는 형태로 거래를 추진했다. 매각 이후에는 폴리프로필렌(PP) 사업에 집중해 매출과 이익 증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도 고정비 부담이 컸던 비핵심 사업 구조가 슬림화되면서 원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동명 LG엔솔 사장, 美 배터리 인재 확보 나서

시카고서 글로벌 인재채용 행사
김 사장, 현장 지휘… 참석자 소통

LG에너지솔루션이 김동명 CEO(사장)를 비롯 주요 경영진들을 미국에 보내 미래 배터리 시장을 이끌 현지 핵심 인재 유치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글로벌 우수 인재 채용 행사 ‘BTC’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B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매년 세계 각국의 석·박사급 인재들을 초청해 회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소개하는 채용 연계형 행사다. 지난 2023년 샌프란시스코, 2024년 뉴욕에 이어 올해는 시카고에서 개최됐다.

김 사장은 “배터리 산업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굉장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며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글로벌 인재 채용 행사 BTC in Chicago에서 발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성장 파트너’를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 및 주요 경영진들은 참석자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리더십 및 R&D 연구 사례를 비롯해 사업 비전,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했다.

네트워킹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참

석자들은 초청 인재 연구발표와 포스터 세션 등을 통해 상호 연구분야를 공유하고 최신 연구 트렌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도 실무진이 직접 배터리 주요 기술, 구체적인 연구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였다.

김 사장은 ‘CEO 간담회’를 통해 인재들과 직접 만나 본인의 ‘커리어 스토리’를 소개하고 R&D 기반의 커리어 패스와 성장에 필요한 역량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과 소통했다.

그는 “각 분야의 탁월한 잠재력을 지닌 여러분들과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정을 생각하니 가슴 뛰고 벅찬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행사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첫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AI 가전 트로이카’ 캠페인

삼성전자는 자사 에어컨·세탁기·냉장고의 대표 광고모델이었던 김연아, 한가인, 전지현과 함께 새로운 인공지능(AI) 가전 광고 ‘AI 가전 트로이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에어컨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를 소개하며 ‘AI 가전=삼성’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캠페인 티징 영상 ‘소환 편’에는 세 모델이 과거 자신이 출연한 광고를 회상하며 최신 AI 가전을 소개하는 모습이 담겼다.

‘AI 가전 트로이카’ 캠페인 영상은 삼성전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현대차그룹 3사,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현대차·기아·모비스〉

견제기능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더 투명한 경영 의사 결정 체계를 갖춘다.

현대차 등 3사는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경영진에 경영자료와 현안 보고를 요청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올레드, 美·英 등 글로벌 미디어 호평

베스트 바이·에니터스 초이스 등 선정

삼성전자가 2025년형 삼성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가 해외 주요 전문 테크 미디어들로부터 연이어 호평을 받으며 기술력과 완성도를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OLED 라인업을 3개 시리즈, 14개 모델로 확대했다. 빛 반사를 줄여 눈부심을 차단하는 ‘글레이프리’ 기능, 저해상도 영상을 4K급으로 시청할 수 있는 ‘4K AI 업스케일링 프로’ 기술 등이 특징이다.

영국 정보기술(IT) 매체 ‘테크레이더’는 삼성 OLED SF95를 “2024년 올해의 TV로 선정된 전작보다 화질 디테일까지 강화된 제품”이라며 “글레이프리 기술로 밝은 환경에서도 빛 반사를 줄여준다”고 호평했다.

또 다른 영국 IT 매체 ‘AV포럼’도 SF95를 “가격 대비 최고의 QD-OLED TV”라며 ‘베스트 바이’로 선정했다.

미국 홈 엔터테인먼트 기기 전문 매



2025년형 삼성 올레드 SF95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체 ‘홈시어터리뷰’는 SF95를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하고 “미니 LED를 압도한 가장 밝은 TV”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 유명 테크미디어 ‘탐스가이드’는 “높은 밝기와 눈부심 방지 기술, AI 기능, 매우 얇은 디자인 등을 갖춘 삼성 최고의 OLED TV”라고 평가했다.

삼성 OLED SF90 모델에 대해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영국 IT 매체 트러스티드리뷰는 SF90 모델에 대해 테스트 점수 만점을 부여하며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 높은 화질, 게이밍 기능까지 문제점을 찾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삼성, 상반기 입사 지원자 GSAT 실시

삼성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관계사 16곳의 2025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GSAT를 실시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6개사다.

삼성은 지난 3월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5월 면접 ▲건강검진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은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능력 위주의 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1957년 국내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를 도입한 이후 약 70년간 제도를 이어오고 있다. 1993년에는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도입하고 1995년 지원 자격 요건에서 학력을 제외하는 등 ▲성별 ▲학력 ▲국적 등을 배제한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또한 ▲직급 통폐합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직급별 체류 연한 폐지 ▲평가 제도 개선 등 인사 제도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혜민 기자

SK온, 美 스타트업 전기차 수주 6년간 20GWh 배터리 공급 계약

미국 픽업트럭 시장 본격 공략
슬레이트 2도어 전기차에 탑재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 확대
美 생산공장 가동, 현지공략 가속

SK온이 미국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며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SK온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온은 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약 2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는 준중형급 전기차 약 3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양사는 추후 차량 생산이 늘어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배터리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슬레이트는 지난 2022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설립된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내년에 가격 경쟁력과 개성을 모두 갖춘 2도어 전기 픽업트럭을 출시할 계획이다. 가격은 3만달러 이하로 책정하는 게 목표다. 차량 제조공정과 디자인 등을 단순화해 판매가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해당 차량에는 SK온의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다. 에너지 밀도·안전성·성능 등 다방면에서 인정받은 제품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중시되는 미국 시장에서 특히 수요가 높다. ‘주요 성능은 타협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슬레이트의 사업 전략



(왼쪽부터)크리스 바빈 슬레이트 최고경영책임자, 이석희 SK온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열린 슬레이트 신차 공개 행사 중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SK온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배터리 생산은 SK온 미국 공장에서 이뤄진다. SK온은 2019년부터 미국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해 공장 건설에 나섰고 2022년 배터리 양산에 돌입했다. 이후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며 고객 신뢰를 쌓아왔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SK온은 미국에서 올해와 내년에만 생산까지 3곳의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다. 2026년 말 기준 SK온 글로벌 생산능력(CAPA)에서 미국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SK온의 배터리 공급 차종이 중저가 모델까지 확대된

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이다.

그간 SK온은 주로 프리미엄급 차종에 배터리를 공급해왔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고성능 배터리를 제공하며 전기차 대중화에도 추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석희 SK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협업은 SK온의 기술력과 미국 양산 역량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라며 “미국은 SK온의 핵심 전략 시장이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현지 생산 배터리를 제공해 다양한 고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제품 탄소발자국 방법론’ 인증 획득

LG디스플레이, 탄소관리 체계 고도화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로 글로벌 검사·인증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제품 탄소발자국 방법론’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제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체계를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LG디스플레이는 저탄소 제품 수요 확대와 인증 정보 요청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 표준인 ISO 14067에 기반한 제품 탄소발자국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이 체계는 데이터 수집 및 계산, 영향 평가 방법 등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디스플레이 산업에 최적화된 자체 평가 방법을 추가해 체계의 고도화를 이뤘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제품 탄소발

자국 평가 IT 시스템도 자체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제품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기존 제품 개발 시스템 데이터와 연동돼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탄소발자국 수치를 신속하게 산출할 수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LG디스플레이는 탄소배출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제품 경쟁력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기 LG디스플레이 중형개발그룹장 전무는 “이번 인증은 친환경 제품 관리 체계가 글로벌 신뢰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ESG 경영을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중기부,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오디션

32.5:1 경쟁률을 뚫은 390개 팀

국내 소상공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1차 오디션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오디션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서울, 세종,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다.

라이콘은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및 로컬 분야의 혁신기업을 뜻하는 개념이다. 생활 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이 창작자, 스타트업, 타분야 소상공인 등과 협업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은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장수소상공인, 글로벌, 온라인셀러 등 5개 유형으로 나뉘 추진한다.

올해 사업에는 총 7147개 소상공인이 지원해 3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심층 평가를 거쳐 유망 소상공인 640개 팀을 선발했고, 이중 온라인셀러 유형을 제외

한 390개 팀이 이번 1차 오디션에 참여한다. 온라인셀러 유형은 오디션 대신 서류 및 발표 평가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160개 팀은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 최대 6천만 원을 지원받고, 오는 8월 예정된 파이널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파이널 오디션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최대 4000만 원의 추가 사업화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경제인협회가 파이널 오디션 공동 개최와 방송용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 상생 유통 판매전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최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소상공인이 만드는 식품, 화장품, 의류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전자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 한화 건설부문과 손잡고 ‘냉각 솔루션 개발’에 본격 나선다. /LG전자

LG전자

직류방식 ‘칠러’ 개발

LG전자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 한화 건설부문과 함께 국내 최초로 직류(DC) 방식 대형 칠러 개발에 나선다.

LG전자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한국전력, 한화 건설부문과 ‘직류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3사는 총 10MW 규모 데이터센터 서버와 냉각설비 중 1MW를 직류 전력으로 공급하는 ‘전력 소비 절감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발열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혜민 기자 hyem@

특례보증 신설에도 “지원효과 미흡”

〈위기기업〉

중기부, 신보·기보 통해 4.5조 예정
“기존 수출우대비 혜택 체감 낮아”
관세 피해 판별 어려워 제도 보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약 4조 5000억원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이 사실상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 피해 기업’의 객관적 기준도 모호해 운영시 제도도 보완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추경으로 신설한 위기기업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약 3조 3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약 1조 2000억원을 운영한다. 신보와 기보는 기존의 일반보증과 구분해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27일 중기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위기기업특례보증은 ▲미국의 관세부와 조치로 수출실적이 감소했거나 매출액, 고용 등이 줄어든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등 관세피해업종의 중소기업 ▲산불 등 재난피해지역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받을 수 있다. 신보와 기보는 관세 피해에 대해선 직접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

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은 90~95%로 통상 85% 수준인 일반보증보다 높다. 보증료율도 0.2~0.5%p 우대해 기업들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위기기업특례보증이 기존의 수출기업 보증우대와 비교해 혜택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보는 연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미만인 수출 진입 기업의 경우 최고 매출액의 25~50%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 보증비율 90% 상향, 보증료 최고 0.3%p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보도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에 따라 90~95% 수준의 보증비율 상향우대, 0.2~0.4%p의 보증료 감면, 신용도 검토 항목 심사 및 전결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예정처는 “현재 추진중인 위기기업특례보증은 일부 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제외하면 특례보증에 따른 실질적인 우대 폭이 계획 대비 높지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선 기존 수출 보증우대 혜택과 비교해 체감할 수 있도록 높은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KCC글라스 홈씨씨, ‘숲 강마루 스톤’ 리뉴얼

신규 디자인 2종 추가, 6종으로 늘어

KCC글라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스톤테리어(스톤+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강마루 바닥재 ‘숲 강마루 스톤’(사진)을 리뉴얼 출시했다.

27일 KCC글라스에 따르면 숲 강마루 스톤은 천연석의 느낌을 구현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천연석 바닥재 대비 합리적인 시공 비용과 우수한 난방 효율을 가진 강마루의 장점을 더한 프리미엄 바닥재 제품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시로코 라이트 ▲소노마 크림 등 2종의 신규 디자인을 추가하면서 숲 강마루 스톤의 제품 라인업은 총 6종으로 늘어났다.

신규 디자인은 최근 타일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색상과 패턴을 반영해 개발했다. 시로코 라이트는 모던한 그레이 톤과 웨이브 패턴으로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소노마 크림은 따뜻한 크림색 바탕에 섬세한 입자감을 더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숲 강마루 스톤은 일반 강마루보다 두 배 이상 큰 규격(폭 398mm, 길이 800mm)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1등급 내수 합판과 HPL(High Pressure Laminate) 고강도 표면 코팅 처리를 적용해 온도 변화나 습도에 의한 변형과 뒤틀림을 줄이고 내마모성, 내열성, 내오염성을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

10th
ANNIVERSARY
모짜렐라인더버거

LOTTERIA™



토마토 바질



발사믹 바질

나폴리 맛피아 모짜렐라 버거

버거,
맛있게
손봤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 분리’ 가능성… 국내 음원사, 고객유치 ‘분주’

공정위, ‘유튜브 끼워팔기’ 제재 조치
플로, ‘FLO케어’ 프로젝트 업데이트
지니뮤직, 트렌드 반영·빠른선곡 기능
멜론, 경쟁사 상관없이 서비스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끼워팔기’ 제재 조치에 구글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프리미엄(영상 서비스) 상품’과 ‘유튜브 뮤직’이 분리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 뮤직을 프리미엄(영상 서비스) 요금제에 끼워 넣어 판매했다는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던 구글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는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향후 공정위는 1차 전원회의에서 유튜브의 시정 조치가 담긴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끼워팔기’ 제재 조치에 구글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프리미엄(영상 서비스) 상품’과 ‘유튜브 뮤직’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첫GPT로 생성한 이미지

검토할지를 정할 방침이다. 시정 조치안을 살펴보기로 결정이 난 경우 2차 전원회의를 통해 구글의 개선 방안이 충분한지 확인한 뒤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한다.

2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대표 음원 서비스 3사는 유튜브 뮤직 분리로 음원 시장에 풀릴 고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신규 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플로는 고객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니즈를 파악하고 양질의 음악 청취 환경을 제공하는 ‘FLO케어’ 프로젝트를 지난달 시작하며, 첫 업데이트로 ‘나의 RE:CORD(레코드)’ 서비스를 공개한

데 이어 내달 후속으로 신규 기능을 선보인다. 유튜브를 음악 서비스로 병행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페인 포인트(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지점)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와 다양한 고객 프로모션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플로는 강조했다.

플로의 정덕희 전략기획 홍보담당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출시된다면 국내 이용자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가 넓어진다. 가격과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유저가 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기존의 모든 사용자가 유튜브 뮤직이 포함된 고가 요금제를 지속해서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니 뮤직은 현재 인기곡 위주의 차트(연별별, 최신앨범, 실시간, 일간, 주간, 시대별)로 타깃별 사용자의 음악 이용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으며, ‘빠른 선곡’ 서비스를 통해 유저가 들었던 음악을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유사 성향의

음악 큐레이션을 제공 중이다.

케이티지니뮤직 최윤선 경영기획본부장은 “당사는 N스크린 정책으로 자동차, IPTV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고객이 음악을 별도 요금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기업 제휴 상품을 제공한다”며 “향후 기업 간 제휴를 확대해 신규 음악 고객을 확보하고 플랫폼 성장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멜론은 경쟁사의 상황에 상관없이 구간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사랑받아왔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본지에 밝혔다. 국내 2위 음원 서비스 업체다운 자신감을 내비친 것.

멜론은 ▲아티스트의 신규 앨범을 홍보하는 서비스 ‘멜론 스포트라이트’ ▲AI 음악 추천 서비스 ‘믹스업(MIX UP)’ ▲아티스트 채널에서 팬들과 가수가 신곡을 들으며 채팅하는 ‘뮤직웨이브’ 등의 서비스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LG U+ ‘키즈토피아’, 체험형 K콘텐츠 선배

3D 가상체험공간서 AI 캐릭터와 대화
외국어·동물·공룡·우주 등 체험
이프아이 체험존서 케이팝 경험도

LG유플러스의 디지털 키즈 테마파크 서비스 ‘키즈토피아(KidsTopia)’가 가상공간에서 한국의 생태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키즈토피아는 어린이들이 3차원(3D) 가상 체험 공간에서 AI 캐릭터와 대화하며 외국어·동물·공룡·우주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한국을 비롯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누적 가입자는 160만명에 이른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고객 증가에 맞춰 키즈토피아를 통해 한국 고유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진은 키즈토피아를 소개하는 LG유플러스 모델의 모습. /LG유플러스

공간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로써 키즈토피아는 동물원, 공룡, 숲 등에 이어 갯벌 체험도 가능해졌다.

LG유플러스는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을 키즈토피아 내 가상 공

간으로 구현했다. 키즈토피아 내 ‘갯벌’에서는 아바타가 12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을 채집하거나 퀴즈를 풀며 학습할 수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K-POP)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프아이(ifeye)’ 체험존도 마련했다. 이프아이는 이달 8일에 데뷔한 6인조 걸그룹이다.

이밖에 LG유플러스는 아동이 즐겁게 체험하며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AI 영어 체험 편의점’을 도입했다. ‘AI 영어 체험 편의점’에서는 아동이 직접 편의점 점장이 되어 다양한 국적과 직업을 가진 AI 캐릭터 손님들 영어로 응대하는 체험을 제공한다. 실생활 회화를 바탕으로 한 구성 덕분에 아동은 자연스럽게 언어를 학습할 수 있다.

/김서민 기자 seoh@

SKT, 해킹사고 ‘인지시간’ 허위제출 논란

과태료 납부 문제에 늦췄을 가능성
한국인터넷진흥원 사건 무마 의혹도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시한을 넘겨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해킹을 인지한 시간이 4월 20일 15시30분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허위신고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4월 20일 16시46분에 인터넷 해킹사건 관련 침해사고 신고를 제출했다. 해당 신고서에서는 SK텔레콤의 해킹 인지시간이 4월 20일 15시30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SK텔레콤은 4월 18일 오후 6시9분에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18일 오후 11시 20분에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에 공유했다. 또한 다음 날인 19일 오전 1시 40분에는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을 시작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실제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18일 오후 11시 20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이를 20일 오후 3시30분이라고 40시간 지난 시점으로 제출해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이 KISA 신고시간을 늦춘 것은 과태료 납부 문제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SK텔레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허위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일 15시30분에 해킹을 인지해 1시간 16분만인 16시46분에 신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늦장신고가 아니며, 이에

따라 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3000만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측은 20일 신고서 접수 당시에 해킹인지 시점을 18일 오후 11시 20분으로 제출하려고 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오히려 20일 15시30분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해킹사고의 ‘인지시간’은 기업에서 사고 조사 후 명확하게 침해사고라고 판단하고 내부 보고한 시간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SK텔레콤은 이미 18일 오후 11시 20분 해킹사실을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진 의원은 “SK텔레콤이 18일 밤 해킹을 인지하고 내부 공유까지 한 것이 명백한 데도 책임자가 신고를 결정한 시점이 사고 시점이라며 고쳐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SK텔레콤이 침해사고 발생시 이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자, 알아서 무마해주려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건 접수 과정에서 석연치않은 행위를 한 것뿐 아니라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더딘 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침해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한 시점은 21일 오후 2시 6분으로 신고 접수 21시간여가 지나고 나서였다.

현장 상황 파악과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KISA가 전문가를 파견한 것은 이보다 6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8시로 신고 접수 28시간만이었다. 이마저도 실제 서버 해킹이 일어난 분당 센터가 아닌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였는데, KISA는 원격으로도 상황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내 게임사, ‘서머 게임 페스트’ 준비 박차

넥슨 ‘프라시아 전기’ 글로벌 버전
넷마블 ‘신의 탑: 뉴 월드’ 글로벌 론칭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후속작
위메이드 ‘미르4 글로벌’ 신규 콘텐츠

오는 6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막하는 글로벌 게임 쇼 ‘서머 게임 페스트 2025’를 앞두고 국내 게임사들이 신작 발표를 잇따라 예고했다. 지난해보다 참가 규모와 신작 무게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게임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MMORPG ‘프라시아 전기’ 글로벌 버전을 이번 ‘서머 게임 페스트 2025’에서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넥슨은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시장에 맞춘 콘텐츠 조정과 서비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톤은 신작 ‘다이나믹 아츠’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넷마블은 ‘신의 탑: 뉴 월드’의 글로벌 론칭 버전을 준비 중이다. 인기 웹툰 IP를 활용한 이 게임은 서머 게임 페스트를 통해 글로벌 게이머들에게 최초로 대규모 플레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 시에라 스쿼드’의 후속작 개발 상황을 공개한다. 가상현실(VR) 기반 1인칭 슈팅(FPS) 게임으로, 차세대 VR 플랫폼에 맞춰 최적화된 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메이드는 미르 IP 기반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의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로드맵을 발표한다.

올해 서머 게임 페스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해보다 참여 기업과 공개



서머게임페스트 2025 대표 이미지. /서머게임페스트 사무국

신작의 무게감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대형사가 중심이었으나 올해는 EA, 유비소프트, 워너브라더스, 텐센트 등 다수 대형 퍼블리셔가 대거 참가한다. 특히 차세대 콘솔 타이틀과 AAA급 신작 라인업이 대거 공개될 예정이다라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금리하락·추경편성 등 우려 겹쳐 韓 떠나 美로 피신하는 ‘채권개미’

개미들, 이달 채권 1.5조 순매수
지난달 2.9조 보다 2.4조 줄어

美 채권 순매수액 68.6억 달러
통계집계 이래 가장 큰 규모

“CJ제일제당과GS리테일회사채 팔고 미국 하이일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샀는데 잘한 걸까요?” “잘하신 겁니다. 채권도 미장(미국 증시)으로 옮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27일 채권개미(채권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왔다.

불안한 시장 분위기에서 지친 ‘동학채권개미’(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고 있다. 올해 홈플러스 등 중견·중소기업의 신용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추가경정예산 편성 우려 등이 겹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위협피해 심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주식에서 채권으로 피신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이달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들어 25일까지 개인투자자 채권 순매수 규모는 1조5486억원으로 타나났다. 지

난 3월 3조9137억원 보다 2조4000억원 가량 적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순매수 규모는 1월 3조1047억원에서 2월 3조3457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매달 3조원 이상의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이달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매수 규모가 2조원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미들은 해외 채권을 늘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순매수액은 68억5986만 달러(9조8541억원)다.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올해 전체 국내 채권 순매수액 11조9217억원보다는 적다. 하지만 4월 순매수액은 21억3821만 달러(3조715억원)로 국내 채권 매수액 보다 많다.

‘동학 채권개미’들의 매수세가 한풀 꺾인 건 최근 급격히 하락한 금리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많은 탓으로 풀이된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여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국고채 3년물 최종호가수익률은 이달 초만 하더라도 연 2.581%였으나 지난 25일 2.305%로 연저점을 경신했다.

10년물도 연 2.787%에서 2.576%로 떨어지는 등 이달에만 20bp(1bp=0.01%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홈플러스 등 올해 중견·중소기업의 신용위기 우려가 커진 영향도 있다.

시장에서는 채권시장까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 A 증권사의 PB 센터장은 “요즘 고액 자산가들은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투자를 꺼려 판매를 보류했다”면서 “해외 채권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개미들이 국장을 외면할 경우 기업 자금조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22년 상반기 월평균 8500억원에 그쳤던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시장 비중이 최근에는 10%로 커지는 등 채권 시장의 주요 투자자로 부상했다. 은행·자산운용사·외국인 다음으로 순매수 규모가 크다.

회사채 시장 분위기도 안 좋다. 금투 업계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를 비롯한 대규모 공사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신용경색 발생 시 ‘본드런(bond run)’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높은 수익에 절세까지… CFD에 ‘몽칫돈’

금투협, CFD 명목잔고 1.7조
전년 1조 대비 약 61% 급증
해외 매수잔액 5075억, 3배 ↑

최근 불안한 증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고 절세까지 가능한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에 고액자산가·전문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잔고는 1조6994억원으로, 1년 전(1조550억원) 대비 약 61% 급증했다. 지난 2023년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신규 거래가 중단됐던 CFD는 같은 해 9월 거래가 재개된 이후 거래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CFD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만 거래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평균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잔액 3억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는 증거금의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11%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만 부과돼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 CFD에도 22~27.5%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기존 세제 혜택이 유지돼 절세 메리트는 더욱 강화됐다.

이러한 절세 효과는 해외주식 거래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CFD 해외 매수잔액은 5075억원으로, 전년(1521억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과세기준이 원화로 산정돼 매매차익과 환차익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CFD를 이용하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CFD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관련 자산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최근 공매도 거래 재개와 절세 효과까지 부각되면서 투자 수요가 더욱 몰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CFD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나 하락 방어 전략이 당분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차증권 MTS에 주식 브리핑 서비스

현대차증권은 현대차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일’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내 및 미국 주식 종목 브리핑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AI 종목 브리핑 서비스란 국내 및 미국 주식 전 종목(ETF 포함)의 가장 최근 주가 등락 사유와 핵심 이슈를 뉴

스를 토대로 매일 브리핑해주는 서비스다. 생성형 AI가 개별 종목에 발생하는 방대한 뉴스를 분석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를 선별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 제공한다.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 개별 종목 관련 영문 뉴스, 공식 및 어닝콜까지 실

시간으로 분석해 한글로 번역·요약해 제공한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의 경우, 주요 구성 종목의 이슈 현황과 뉴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5월부터는 ‘나의 AI 종목 브리핑’ 화면을 이용하면 보유 종목에 대한 AI 종목 브리핑을 모아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대차증권은 ETF 투자정보 강화를 위해 ETF 파인더 서비스도 선보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AI·블록체인·STO 기술
SaaS 전환, 수익 다변화
올해 매출 1000억 목표”



코스닥 CEO 인터뷰

안인주 핑거대표

핀테크 기업 핑거가 ‘디지털 금융 혁신 플랫폼’을 앞세워 새 판을 짤다. 안인주 핑거 대표는 “올해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전문 그룹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안인주 대표는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핑거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AI·블록체인 등 독자 솔루션에
서울대 협력 AI 플랫폼 등 차별화
독도버스·핑거AI패드 등 선보여

조창기부터 개인 금융정보통합관리 서비스(PFMS)를 선보이며 시장을 개척했고, 스마트뱅킹과 자산관리로 사업을 확장했다.

지난 2000년 창립한 핑거는 25년 업력을 기반으로 기술력, 시장 적응력, 혁신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AI·블록체인·클라우드·데이터(ABCD) 독자 솔루션과 서울대 협력 AI·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핑거만의 차별화 포인트다. 독도버스, 파로스, 핑거AI패드 등 차세대 플랫폼도 잇달아 선보이며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의 주요 사업은 비대면 금융 플랫폼 구축, AI·블록체인·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핀테크 수수료 사업, IT 아웃소싱 등이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스마트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솔루션을 앞세워 금융권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 NFT, STO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핑거는 SaaS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맞춤형 솔루션 공급을 넘어 플랫폼 중심 사업 모델로 체질을 바꿔가는 중이다.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한국조폐공사의 ‘온누리상품권’ 운영 경험도 SaaS 경쟁력으로 녹여냈다. 핑거는 이와 함께 기업 고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며 업계 내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올해 핑거는 AI, 블록체인, STO 기술을 SaaS 모델로 전환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매출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그룹사 간 시너지 강화와 연계 사업 확대로 수익구조 안정도 함께 꾀할 방침이다.

핑거의 성장 전략은 세 갈래다. 첫째, 자율성과 존중이 공존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인재를 적극 육성한다. 둘째, AI 기반 신규 SaaS 서비스를 통해 수익 기반을 다각화한다. 셋째, 핑거패밀리(계열사)와의 협업을 강화해 통합 플랫폼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안 대표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파는 회사가 아니다”며 “고객과 사회에 실질적 가치를 주는 디지털 금융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핑거가 추구하는 비전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kdh@

“간병비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보류”

금감원 Q&A

간병보험 주요 민원 사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간병에 드는 사적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 시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골절로 입원한 A씨가 외부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간병비 지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이용했다라도 비용을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에서는 지인이 간병을 도운 뒤 보험금을 청구한 B씨의 경우, 보

험사가 실제 간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전문간호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병원 내 전문 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일부 보험약관에서는 이 서비스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C씨는 약관상 보상 제외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치매 간병비(진단비)와 관련한 사례도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D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약관에는 단순한 진단뿐 아니라 보행,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허정운 기자

교대 수시, 내신 6등급도 붙었다 정시 합격선은 4등급까지 하락

종로학원, 올해 교대합격선 공개

수시 등록자 내신 평균 3.61등급
서울교대·한국교원대 모두 하락
춘천교대 수시 6.15등급까지 ↓

2025학년도 교육대학 입시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6등급 학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모집 합격선도 4등급까지 낮아지면서 상위권 뿐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에게도 교대 선호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종로학원이 교대 중 2025학년도 합격 점수를 공개한 서울교대, 춘천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5곳을 분석한 결과 수시 일반전형 등록자 최저(서울교대·청주교대는 등록자 80% 컷) 기준 5개교 평균 합격선은 3.61등급이다. 2023학년도 2.74등급, 2024학년도 3.22등급이었지만, 전년 대비 0.39p 하락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교대 수시 일반전형 내신 합격선은 2.10등급으로, 2023학년도 2.06등급, 2024학년도 1.97등급에서 하락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전년 1.99등급에서 2025학년도에는 2.45등급까지 떨어졌다.

춘천교대는 2023학년도 수시 일반전형 4.16등급, 2024학년도 4.73등급에서 2025학년도 6.15등급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101명을 선발한 교직 적인성인재전형의 경우, 6.35등급까지 내려갔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도 연속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학년도 1.74등급, 2024학년도 2.05등급에서 2025학년도엔 2.25등급을 기록했다.

광주교대는 2023학년도 2.85등급, 2024학년도 3.54등급, 2025학년도 3.54등급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지난 2023년 4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만, 60명을 선발하는 수시 전라남도교육감 추천전형은 4.27등급으로 2023학년도 2.77등급, 2024학년도 3.15등급에 비해 하락폭이 매우 크게 발생했다.

청주교대는 2023학년도 2.31등급, 2024학년도 2.92등급, 2025학년도 3.44등급으로 연속 하락했고, 112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의 경우, 2025학년도 4.07등급으로 2023학년도 2.44등급, 2024학년도 3.08등급에 비해 하락 폭이 매우 큰 상황이다.

정시모집도 합격선 하락세가 뚜렷하다. 등록자 환산점수 80%컷을 공개한 서울교대는 2024학년도 621.74점에서 618.41점으로 3.33점 하락하며, 수시, 정시 모두 2025학년도 합격선이 낮아졌다.

춘천교대는 등록자 수능 등급 최저기준으로 발표했고, 2023학년도 3.57등급, 2024학년도 3.63등급에서 2025학년도 3.82등급까지 하락했다.

한국교원대(등록자 자체 환산 백분위 최저점수 기준)도 2023학년도 93.54점, 2024학년도 90.29점, 2025학년도 89.21점으로 연속 하락하고 있다.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80%컷을 기준으로 공개한 광주교대 역시 2023학

년도 79.17점, 2024학년도 72.17점에서 2025학년도에는 4등급 구간에 해당하는 68.33점으로 합격선이 내려갔다.

단, 청주교대(등록자 수능 등급 80%컷 기준 발표)는 2023학년도 2.75등급, 2024학년도 3.38등급에서 2025학년도 3.25등급으로 0.13등급 소폭 올랐다.

합격점수를 공개한 이들 5개 대학 모두 선발인원을 전년도보다 줄이면서 총 선발인원이 전년 1402명에서 2025학년도 1258명으로 10%가량 줄었지만, 합격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격선 하락은 물론, 하락폭 또한 커지면서 교사 관련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상위권 뿐만 아니라 중위권대 학생들에게도 교대 선호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신 합격선이 6, 7등급까지 내려가고 수능 합격선 점수도 4등급 중반대까지 내려가는 상황은 교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초3~6학년 대상 ‘독서 골든벨’ 개최

서울교육청, 교보문고 공동 주최
총 1000명 선착순 참가자 모집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6월 14일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당에서 ‘모여라! 독서 골든벨’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여라! 독서 골든벨’은 서울시교육청과 교보문고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노원평생학습관과 송파도서관, 양천도서관, 용산도서관이 주관·운영한다.

참가 대상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생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동일 연령 어린이이며, 대회는 예선과 결선을 학년부(3~4학년, 5~6학년)로 나눠 진행된다.

대회 참가자들은 사전에 선정된 학년별 필독 도서 7권을 읽고, 도서 내용

을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를 풀게 된다.

시교육청은 결선에서 최종 12명의 수상자를 선발해 서울시교육감상과 교보문고 대표이사상을 수여한다.

특히 도서 선정에는 사서, 초등학교사, 대학교수, 작가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주제와 수준을 고려한 학년부별 7권의 도서를 선정했으며, 선정도서는 22개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무료로 대출해 읽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모여라! 독서 골든벨’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총 1000명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교보문고에서 제작한 참가 티켓이 발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모여라! 독서 골든벨’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북웨이브’ 캠페인 실시

독서실천단 선착순 400명 모집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독서실천단 ‘북웨이브 크루’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북웨이브 크루’는 시교육청이 관내 학교·도서관·마을을 중심으로 책 읽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한 ‘북웨이브’ 캠페인의 두 번째 프로젝트다.

‘북웨이브 크루’는 북웨이브 캠페인을 이끌어갈 시민 독서실천단으로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선착순 400명을 모집한다. 북웨이브 캠페인의 가족 단위 독서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학부모 등 일반 시민과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내 독서동아리·학습동아리와 같은 시민 참여 공동체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북웨이브 크루’는 독서 기록·책 추천·필사 등 독서 활동을 하거나 북웨이브 캠페인으로 추진되는 각종 독서 행사에 참여하고, 이를 개인 SNS 등 온라인에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독서 문화 확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 기간은 6월 4일 발대식을 시작



서울시교육청이 독서실천단 ‘북웨이브 크루’ 모집한다. /서울시교육청

으로 11월 예정인 북웨이브 성과공유회까지이다.

‘북웨이브 크루’ 회원에게는 활동 실적에 따라 물방울·물결·파도의 3가지 등급이 부여되며, 등급별로 소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모든 등급의 크루원에게는 프리미엄 저자강연회 ‘찾아가는 학부모 북콘서트’의 우선 접수권이 제공되며, 소셜미디어(SNS)용 사진 촬영법 및 독서 기록법 등 북웨이브 크루 활동을 위한 특별 강좌도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북웨이브 크루’ 지원을 위한 온라인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 주의보

전자상거래센터 피해상담 분석
최근 7개월간 2천만원 피해 발생
“2주 내 미배송 땀 카드사 이의제기”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으로, 피해 금액은 19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브랜드 및 쇼핑몰의 할인 행사가 집중된 연말

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최근에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유사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라며 “유명 패션 브랜드 외에도 스토크, 자라홈 등 유명 생활용품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사이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기사이트는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인 ‘*.COM’이 아닌 ‘*.TOP’, ‘*.SHOP’, ‘*.LIVE’, ‘*.VIP’ 등 신규 도메인 확장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SNS 광고로 연결된 온라인쇼핑몰은 도메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칭 사기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서버를 통해 운영

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온라인쇼핑몰 사기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요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면 상품 페이지와 주문·결제 내역 등의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해외 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과 관련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조정절차를 거쳐 결제 취소 및 환불 등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글로벌 산학협력 성과 공유회’ 성료

베트남에 국내 기업들 진출 지원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가 베트남 박닌시에서 씨젠의료재단 등과 ‘글로벌 산학협력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호서대, 씨젠의료재단, 베트남 박하기술전문대, 아시아한상 베트남북부지회 및 씨젠의 해외사업 담당 자회사 오픈헬스케어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산학협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베 글로벌 산학협력 고도화 방향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산학협력 전략 ▲글로벌 인재양성 및 취업 연계 성과 등이 발표됐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와 씨젠의료재단은 지난 1년간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픈헬스케어의 ‘하노이 메디컬 센터’ 설립을 지원했다. 이 센터는 맞춤형 질병검사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호서대는 박하기술전문대에서 선발된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기업문화 이해,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했으며, 해당 인재들은 현지 의료현장에 투입돼 효과적인 실무 경험을 쌓는 성과를 거뒀다.

한정수 호서대 전자재료공학과 교수는 “호서대와 씨젠의료재단의 협력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한 모범사례”고 말했다.

www.dseshop.co.kr


동성제약

“샴푸 3분만에 염색 끝”

힘든 염색은 이제 그만, 감기만 하면 염색 끝 - 세브에이트 블랙샴푸



샴푸하듯 간편하게, 초스피드 3분 염색

세브에이트 블랙샴푸



3분 염색으로 빠르게 30분 걸리는 길고 지루한 염색시간, 단 3분이면 OK
눈시림, 두피자극, 냄새 걱정없이 빠르고 편안한 초간단 새치커버



유해성분 없는 건강한 새치케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생각하는 순한 염색,
피부자극 걱정없이 염색후에도 보들보들한 머릿결 유지



식물 유래성분으로 건강하게 검은깨, 흑미,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랙푸
드 4종, 백나무잎 특허성분에 9가지 비타 과일 추출물로 생기있는 머릿결



■ 특별 할인판매 • 색상: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선택) • 제품 구성: 26회 사용분 + 전용장갑 2개 • 판매가: ₩19,933원X3(3개월 카드무이자)

상담·구입 문의 **080·854·0082**

부산진구, 부전역 KTX 지정 촉구… 복합환승센터 만든다

중앙선-동해선 교통거점 부산
올해 말까지 맞이길 조성 사업
시, ‘복합환승센터 건립’ 용역

부산 부전역이 중앙선과 동해선의 시·종착역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부산진구는 부전역을 KTX 정차역으로 지정을 촉구하고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부산 부산진구에 따르면 부전역과 서울 청량리역을 잇는 중앙선과 강릉역을 연결하는 동해선이 개통하면서 부전역 일대가 활성화되고 있다.

부전역~청량리역(427km) 노선은 시속 260km의 KTX-이음이 달린다. 부전역~강릉역 노선은 시속 150km의 KTX-마음 열차가 투입되고 있지만 올해 말까 KTX-이음이 이 노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부전역은 이미 동해선 광역전철,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시종착점, 부산형 급행철도(BuTX) 중간역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부전역 일대를 정비하



부전역 전경

기 위해 ‘부전역(고속철도) 맞이길 조성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맞이길 조성은 3개 구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구간은 부전역 앞 광장 및 횡단보도 등 보도블록 노면 개선을 추진한다. 캐리어를 들고 부산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안전한 보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2구간은 부전역에서 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사이 좌측 인도 구간이다. 이 구간에는 부전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서 노후화된 카트보관소 및 적치물 등이 있다. 이를 정비하고 보

도블록도 교체해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3구간은 2구간과 같은 구간의 우측 인도 구간이다. 이곳은 부전시장의 공용주차장이 있으며, 화단이 있지만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야간 조형물 등 설치를 통해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버스 정류소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화단 등에 고사한 수목을 제거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부전역을 KTX 경부선 정차역으로 지정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도 추진한다.

KTX 경부선 정차역 지정은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는 KTX 노선에 지하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전역의 지하에는 KTX 경부선이 지나가고 있고 분기기와 승강장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10여 년 만에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 추진에 나선다. 용역은 복합환승센터 경제성을 평가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 기본 구상 등을 수립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용역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이달 말까지 100만명을 목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전역 KTX 정차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 서명운동을 벌인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부전역이 부산 주요 지점에서 부산역보다 평균 5~12분 가까운 만큼 KTX 경부선이 정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산시, 유럽서 3400만달러 MOU 성과

경산시는 튀르키예와 체코에 8개 관내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실질적인 계약을 이끌어 내고 있다. 튀르키예에서는 3015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9건을 체결했으며, 체코에서는 385만 달러(7건)의 성과를 거두며 역대 무역사절단 가운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경산시

칠곡군

‘로컬브랜딩 사업’ 공모 선정

경북 칠곡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

칠곡군은 물자를 나르던 중간 거점에서 자전거 타기 좋은 체류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군은 왜관읍 일대를 자연환경, 역사문화 자원, 생활권 인프라를 연결해 라이딩을 넘어 지역의 스토리를 체현하는 ‘라이프 스타 일형 자전거 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칠곡(경북)=김준환 기자 kih9@

김해시

공항소음 피해 학생 장학금 지원

김해시가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학생 300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해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조례를 제정해 장학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후 8년째 장학금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에 대상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4월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상반기에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장학금을 지원해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 1주년

여객터미널 실시설계 등 건설 박차

인허가 등 주요절차 마무리 계획 보상 관련 지역주민 적극 소통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공단은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으로 건설될 가덕도신공항을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최고의 공항 건설을 목표로, 지난 1년 동안 기반 마련에 집중해 왔다.

공단은 올해 본격적인 건설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마무리하고, 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도 발굴 및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여객터미널·부대건물 등 공항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이어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가 적격 판정을 받으면 현장 진입도로 및 안전 울타리 등의 우선 시공분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인허가와 육지보상 등의 절차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의 선결과제인 보상 문제의 경우 지역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가면서 원만하게 손실보상 절차와 이주대책 수립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이 완성되면 항공(공항), 해운(항만), 철도, 도로 네 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글로벌 쿼트로-포트(Quattro-Port)가 구축된다.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산업구조 재편을 뒷받침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 “올해 일자리 정책, 6092억 투입”

3만3800개 일자리 창출 계획

포항시가 올해 일자리 창출 계획을 확정하고, 일자리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계획은 지난달 31일 수립해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 ‘2025년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시는 올해 일자리 정책 비전을 ‘시민 중심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도시 포항’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실천 과제로는 ▲미래 신산업 기반 일자리 ▲선진 도시형 인프라 일자리 ▲수요·공급 맞춤형 일자리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 일자리를 제시했다.

시는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등 7개 분야에 총 6092억원을 투

입해 지난해보다 600개 많은 3만3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 산업의 불황과 이차전지 산업의 수요 정체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고용 안정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집중한다.

청년 일자리 분야는 청년창업LAB, 포항청춘센터, 창업플랫폼 등 애초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일자리공감패이 등으로 단계별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철강 고도화,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주력 산업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과 여성 전기기능공 양성, 신중년 재취업 등 계층별 특화 일자리도 확대한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전남교육청, ‘특성화 모델학교’ 사업 고도화

학령인구 감소 위기 대응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형 작은 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2024년 선정돼 운영 중인 특성화 모델학교는 ▲목포서산초(바다浪학교) ▲화양초(학생작가학교) ▲서삼초(TH+ 건강한 아토피 안심학교) ▲중동초(산수유골 씨네스쿨) ▲삼기초(마을을 품은 권있는 영화학교) ▲덕진초(월출 요리조리학교) ▲간문초(영어뮤지컬학교) ▲별량초(지구별 생태학교) ▲고흥대서중(글로벌



‘할리우드 영화학교’ 청풍초등학교 영화프로젝트 학습 /전남교육청

컬 학교) ▲나주봉황중(국악예술감성학교)등 10개다.

올해는 청풍초(할리우드 영화학교), 군남초(균형성장학교), 팔금초(물너울학교) 등 3곳이 추가 지정됐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부산시-코레일, 노숙인 일자리 창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자립 지원

노숙인들에게 부산역 환경미화과 계도 활동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을 부산시와 한국철도공사, 지원센터가 함께 추진한다.

부산시는 한국철도공사(부산경남본부),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와 ‘2025년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숙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사람은 오는 5월부터 부산역과 구포역에서 환경미화 활동과 동료 노숙인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고 월 90만원(일 3시간)의 급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 활동, 취업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유한화학, 유한양행 ‘성장엔진’ 부상… 해외 CDMO 본격 확대

화성공장 HB동 베이2 증설 완료
생산능력 99만5000리터 확보
연속 생산설비 등 시스템 구축
임상소량·상업대량 생산 대응
길리어드에 원료의약품 공급

유한양행의 핵심 자회사 유한화학이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

27일 유한양행은 유한화학화성공장 HB동 베이2 증설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원료의약품 CDMO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생산 시설을 지속 확대해 왔다.

앞서 2023년 11월에도 화성공장에 14만4000리터의 원료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춘 신규 생산동 베이1을 준공해, 69만8700리터에서 84만27000리터로 생산 능력을 20% 늘렸다.

이번 베이2 시설 추가로 화성공장 생산 규모는 약 100만리터에 달하게 됐다. 기존 84만2700리터에서 18% 커져 총 99만5000리터를 확보한 것이다.

화성공장은 생산 역량뿐 아니라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유한화학 화성공장 전경.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속 생산 설비를 도입했다.

특히 생산 장비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생산 과정의 각종 변수를 전자화하고 저장함으로써 생산 공정을 일관되게 유지해 준다. 또 데이터 누락 및 조작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함으로써 신뢰도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유한양행은 유한화학 안산공장에 이어 화성공장에서도 임상용 소량 생산부터 상업화 대형 물량까지 아우르며 고객 맞춤형 글로벌 CDMO

서비스를 제공할겠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은 유한화학을 통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기업 입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유한양행은 유한화학 실적을 해외 사업 부문 성과로 구분하고 있고, 유한화학에서 에이즈치료제, 항생제, C형간염치료제 등의 원료의약품 및 중간체를 생산해 해외 고객사에 공급해 왔다.

유한화학 지난해 실적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2123억원의 매출과 134% 급증한 12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유한화학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유한양행 해외사업 부문 매출은 3000억원을 넘겼다. 유한양행 해외사업 매출은 2022년 2111억원, 2023년 2419억원, 2024년 3065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와 파트너십도 강화했다. 에이즈치료제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생산에 본격 돌입했다. 해당 계약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올해 판매 및 출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한양행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도 CDMO 사업 극대화를 포함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글로벌 CDMO 사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영래 유한화학 대표는 “이번 HB동 완공은 단순한 생산 능력 확대의 의미를 넘어, 유한양행과 유한화학이 세계 유수의 CDMO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품질관리, 기술력, 친환경 경영 등 의약품 CDMO 사업 전반에서 혁신을 이뤄내 고객사와 사회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코오롱티슈진 “TG-C, 인공관절 수술 대체 가능성 확인”

골관절염학회서 장기 데이터 공개
중앙 발생 ‘0건’, 수술률 절반 감소
“FDA 허가·글로벌 진출 병행”

코오롱티슈진이 세계 첫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TG-C’의 가능성을 알렸다.

코오롱티슈진은 4월 24~27일 한국 송도에서 개최된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골관절염학회(OARSI) 총회인 2025 세계 총회(World Congress)에 참석해 TG-C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OARSI는 세계 최고 권위의 골관절염학회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코오롱티슈진은 25일 오후에 진행된 발표에서 미국 내 장기 추적 데이터(U



코오롱티슈진은 4월 24~27일 한국 송도에서 개최된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골관절염학회(OARSI) 총회에 참석해 세계 첫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TG-C’의 가능성을 알렸다.

SLTS)를 바탕으로 한 TG-C의 안전성과 인공관절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세히 다뤘다.

이번 연구는 미국 내 TG-C 임상 2상에 참여한 환자 33명과 임상 3상에 참여해 2년간 추적관찰을 완료한 환자

110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우선 안전성과 관련해 약 15년에 이르는 미국 내 임상의 장기 추적기간동안 TG-C와 연관된 중앙 발생사례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각 연령대별 미국 인구(SEER)의 평균 암 발생확률을 비교하면 TG-C 임상 참여환자들이 현저히 낮은 암 발생확률을 일관되게 보였다.

또한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연구에서 미국 골관절염 환자의 평균 무릎인공관절 수술 데이터와 TG-C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데이터를 직접 비교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지난 11년간 골관절염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이른바 ‘골관절염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TG-C를 투여할만한 대상이 되

는 환자들 595명을 따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 이 중 15.5%의 환자들이 골관절염 발병 이후 평균 5.1년만에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TG-C 임상 3상에 참여해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의 비중은 7.0%에 그쳤으며,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발병 이후 수술시기까지의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났다.

코오롱티슈진 전승호 각자대표는 “이번에 밝힌 TG-C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볼 때 FDA 품목허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그 이후 성공적인 상업화를 위한 준비를 병행해 TG-C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LG생활건강 “먹는 뷰티로 브랜드 차별화” 현대그린푸드, 청년농부 판로 넓힌다

더후, ‘기엔진 구미 밸런스 케어’ 출시

LG생활건강은 궁중 고급 화장품 브랜드 ‘더후’에서 이너뷰티 제품으로 ‘기엔진 구미 밸런스 케어’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엔진 구미 밸런스 케어는 침향, 녹용, 콜라겐, 비오틴 등 몸에 활력 에너지를 채워주는 성분들을 구미 1개에 모두 담은 제품이다. 고품질 인도네시아산 침향을 비롯해 더후 브랜드를 대표하는 핵심 성분들이 고급 비율로 배합됐다.

특히 LG생활건강 측은 이번 신제품

에 더후가 독자 구축한 공진솔루션의 일부 성분을 넣어 브랜드 제품군을 먹는 뷰티로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엔진 구미 밸런스 케어는 저당으로 설계돼 단맛과 구미 제형의 안정성을 위해 첨가되는 설탕 성분은 최대한 배제됐다. 대신 감미료인 ‘말티톨’과 ‘솔비톨’을 함유해 단맛과 상쾌함을 구현했다.

LG생활건강은 기엔진 구미 밸런스 케어가 건강한 생활습관에 관심이 많은 20~50대 고객층의 취향을 정조준해 럭셔리 웰니스 아이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농가 상생 프로그램 ‘청년사계’ 운영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청년 농부를 대상으로 한 농가 상생 프로그램 ‘청년사계’를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사계는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지원과 더불어, 농촌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고 양질의 농산물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현대그린푸드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62개 농가의 청년 농업인이 참여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회사 측은 기존 청년 농업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청년 농업인의 농산물들을 모아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전문관을 만들고, 지원 대상 농업인을 크게 늘리는 등 청년사계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그린푸드는 먼저 전국 현대백화점 식품관에 ‘월간 청년농부’를 테마로 별도 공간을 조성해 매월 한 명의 청년 농부를 집중 조명해 소개하고 해당 농산물을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GC지놈

일본서 AI기반 특허 등록 암 조기진단 신기술 확보

액체생검 및 임상유전체분석 전문기업 GC지놈은 ‘인공지능(AI) 기반 무세포 DNA의 종양 유래 변이 검출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암 조기 진단 방법’에 대한 특허가 일본에서 공식 등록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GC지놈의 AI 기반 비침습적 미세잔존암 검출 기술(G-MRD)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법(NGS)을 활용하여 암의 기능적 및 서열적 특징을 모두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낮은 데이터 양에서 검출된 변이를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어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암의 재발을 발견하거나 치료효과 판정, 환자의 예후 예측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GC지놈은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유방암과 대장암 환자의 치료 후 남아있는 미세 암세포를 감지해 재발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검사를 개발 중이다. 아울러 GC지놈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세포 유리 DNA로부터 얻어진 유전체 변이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RMD)과의 접목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정밀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이디야커피

‘커피 다이닝’ 프로그램 예약률 80% 인기몰이

이디야커피가 선보인 ‘2025 커피 다이닝: 시즌 그리팅’ 프로그램이 약 80%의 예약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지난 3월 28일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디야커피랩 매장에서 오마카세 형식의 ‘커피 다이닝’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은은한 벚꽃차 웰컴티를 시작으로 썬, 냉이, 금굴 등 봄 제철 재료를 활용한 세 가지 시즌 음료와 디저트 페어링 코스로 구성됐다. 특히 ‘2024 월드 커피 인 굿스 피팅’ 우승자인 위승찬 수석 바리스타가 직접 메뉴 개발과 진행을 맡아 전문성을 더했다.

프로그램 인기는 월드 챔피언 바리스타의 퍼포먼스, 소수 정원제 운영, 독창적인 메뉴 구성이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중심으로 운영 시간을 재편하면서 직장인 고객 수요가 늘었고, SNS 후기와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인지도가 확산됐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고객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커피 다이닝 프로그램이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PURSOL

숲의 청정한 공기, 자연을 닮은 환기



'숲속 집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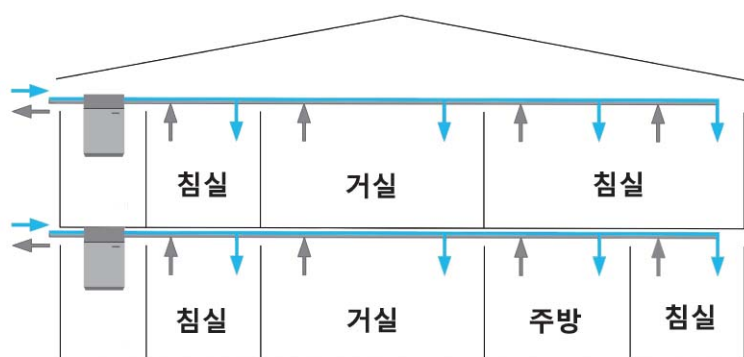
창문을 열지 않아도
미세먼지, 황사 걱정없이
숲속 공기가 집안에 들어온 듯,

환기, 이제는
더 쉽고 편안하게



좌우 도어 방식으로 간편한 필터 교체순서

[신개념] 키친 수납함 스타일로 제작된 도어형 열회수 환기청정기



→ 깨끗한 실외공기 + 산소 공급
← 오염된 실내공기 + 이산화탄소 배출

아파트, 주택, 사무실, 카페, 독서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환기 시스템

[특장점]

●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공구 없이 도어를 간편하게 열어 필터 상태를
직접 자주 확인할 수 있음.

● 1분 셀프 필터 교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안전하게,
목 디스크 걱정 없는 편리한 교체 가능.

● 사계절 내내 에너지 절감!

냉방과 난방 효율을 높이는 최고급 전열교환소자가
내장되어 뛰어난 열교환 성능을 자랑.

● 공기 정화는 기본, 탈취까지 완벽하게!

H13 등급의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와 탈취 기능까지
갖춘 대용량 복합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로
미세먼지, 황사 걱정 없이 쾌적한 환기를 제공.

● A/S 없이도 OK!

필터 교체부터 유지관리까지 스스로 해결!

www.pursol.co.kr

푸르솔 010. 8899. 8651



김병환 금융위원장,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김병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성숙한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미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KDB넥스트라운드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현재 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자(VC)를 연결해 주고 있다. /금융위원회



에쓰오일, 투병 환아와 가족에 제주여행 선물

에쓰오일이 투병 중인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치유의 시간을 마련했다. 에쓰오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담도폐쇄증, 화상, 선천성 당뇨로 투병하고 있는 환아와 환자 가족 총 50여명을 초청해 제주에서 '제18회 햇살나눔 캠프'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에쓰오일



공영홈쇼핑, 소아환자 교육에 3000만원 기부

공영홈쇼핑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소아 환자를 위한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27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기부금은 학령기 소아암 및 백혈병 소아 환자들이 병원학교 수업을 통해 정규 교육을 받는 어린이병원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이종원 대표이사 직무대행(왼쪽)이 최영은 소아영상의학과 교수와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현대백화점

환경 어린이 그림책 전시

현대백화점이 이달 29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판교점 5층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서 환경 그림책 전시 '내일도 만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전시를 통해 22명의 작가가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그린 회화와 일러스트 작품 170여 점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이레네 페나치, 오세나, 위사오루 등 국내외 그래픽 작가의 환경 관련 도서 25권도 마련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락앤락-푸른아시아, 몽골 사막화 방지 '맞손'

락앤락이 몽골 사막화 방지 등 환경 보호에 나선다. 락앤락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와 '20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락앤락은 협약을 통해 몽골 지역의 생태 복원에 힘을 보탠다. 락앤락 이영상 대표(오른쪽 2번째)와 푸른아시아 오기출 상임이사(왼쪽 2번째)가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락앤락

“전속 FP 소명 다짐”, “펫보험 확대”, “생성형 AI 강화”

〈교보생명〉

〈KB손해보험〉

〈흥국화재〉

교보생명, 'MDRT DAY 행사' 진행
KB손해보험-코코스퀘어 '맞손'
흥국화재, AI 경진대회 본선 개최

교보생명은 전속 FP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윤리적 영업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2025 교보 MDRT DAY' 행사를 지난 23일 충남 천안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교보 MDRT FP 630여명과 현장 영업관리자, 본사 임원·팀장 등 총 1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객 이익 우선, 최고의 자문 제공, 고객 비밀 유지, 합리적 의사결정, 영업윤리·법규 준수' 등 5대 윤리 강령을 되새기고 FP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짐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생명보험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목표를 향해 열정을 불태우자'를 주제로 FP들과 소통했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잘 알고 소명의식을 가질 때 더 큰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며 "교보가 추구하는 생명보험인의 사명은 모두가 상부상조를 통해 미래의 역경을 극복하고 평생 든든한 마음으로 일상의 행복을 지키며 소중한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P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을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움으로써 고객보장을 실천하는



❶ 지난 23일 충남 천안시 계성원에서 열린 '2025 교보 MDRT DAY' 행사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두번째줄 가운데)과 교보 MDRT 재무설계사(FP)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❷ 이용무 KB손해보험 디지털사업부문장(오른쪽)과 하성동 코코스퀘어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❸ 송운상 흥국화재 대표이사(왼쪽 첫번째)와 GA지원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각사

존재"라며 "FP라는 직업의 최상의 가치는 고객을 위한 이타적인 일이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에서 반려동물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코코스퀘어와 펫보험 상품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이렉트 펫보험 상품을 코코스퀘어에 제공한다. 코코스퀘어는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반려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을 부가 혜택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보험상품이 반려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임베디드 보험(Embedded Insurance)' 사례로 플랫폼 기반 보험 유통 및 서비스 방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향후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공동 기획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반려동물 입양 인식 제고 캠페인 등 다양한 영역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무 KB손해보험 디지털사업부문장은 "KB손해보험의 펫보험은 단순한 보장을 넘어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생태계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보험과 펫 라이프의 결합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흥국화재가 '생성형 AI 경진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흥국화재는 실무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실시한 '생성형 AI 경진대회'의 본선을 지난 24일 서울 본사 씨네큐브 제1관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GA지원팀 황솔, 배성훈, 도원희, 김현수 직원이 공동 출품한

'홍Good 영업비서'가 수상했다. 이솔루션은 챗GPT와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상품 설명 자료 제작을 지원하는 등 영업 현장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상과 장려상은 각각 2팀씩 선정됐다. 수상팀에게는 총 500만원의 상금과 함께 ChatGPT Plus 3개월 구독권이 제공됐다. 전체 참가자에게도 구독권이 지급됐다. 흥국화재는 이번 대회에서 제안된 모든 아이디어를 모음집 형태로 제작해 사내에 공유할 예정이다. 우수솔루션은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는 직원 주도의 AI 기반 아이디어를 조직 전체의 자산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실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한항공-델타항공 양사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대한항공, 美 해변 환경정화 봉사

델타항공과 산타모니카 해변 청소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공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오후 LA 산타 모니카 부두에서 진행했으며 양사 임직원 총 4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지비영리 환경보호단체 '힐더베이'가 주관한 강의를 듣고 해양 오염의 심각성과 해변 보존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또 4명씩 한 조를 이뤄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팀워크를 다지는 다양한 미션도 수행했다. 팀별로 수거한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하고

팁 간 우위를 가리며 화기에애한 시간을 보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18년 5월 조인트벤처 협약을 맺은 뒤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번 환경 정화 외에 비영리단체 해비타트 집 짓기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몽골 바가노르구 사막화 방지 나무 심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쓰레기 줍기 활동 등을 진행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앞으로도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양사 이미지를 고취하고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인사

◆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 ◇과장급 전보 △고용센터혁신추진단 과장 김초경
◆ **새만금개발청** ◇국장급 승진 △개발사업과장 남궁재용

부음

▲이옥금 씨 별세, 명미자(사랑나눔 적십자봉사회장)·명일택(전 반구시장 상인회장)·명일식(중구체육회장) 씨 모친상 = 27일, 울산영락원 203호, 발인 29일 오전 8시, 052-272-1111

LG전자, ‘모두의 더 나은 삶’ 전한다

‘LG전자 엠버서더 2기’ 발대식

LG전자가 지난 26일 서울 성수동 앤더슨씨 성수에서 'LG전자 엠버서더' 2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LG전자 엠버서더는 제품과 서비스 사용 경험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모두의 더 나은 삶'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고객 크리에이터 그룹이다. LG전자는 제품을 직접 이용해 본 고객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통해 긍정적인 브랜드 경험을 널리 알리고자 엠버서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2기는 5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50명이 선발됐다. 지난 1기

경쟁률(21대 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4월부터 약 3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2기는 ▲젊은 감각으로 화제성을 이끌어내는 '젠지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아이디어랩팀' ▲가전과 인테리어를 접목해 홈 스타일링을 소개하는 '라이프스타일팀' 등 세 팀으로 나뉘어 개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번 활동에는 메가 인플루언서 엄지젤라, 준빵조고, 엔조이커플 등이 팀장을 맡아 활동을 이끈다. 또 지난 1기 엠버서더들도 멘토로 나서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혜민 기자 hyem@

한국타이어, 서울하프마라톤 부스 운영

프로-스펙스와 협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27일 LS네트웍스의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가 공식 후원하는 2025 서울하프마라톤에서 양사 브랜드 협업 부스를 운영했다. 여의도공원 내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는 한국타이어가 그동안 프로-

스펙스와 함께 개발한 러닝화 제품 등을 선보였다. 타이어 소재를 활용한 테이블 등 휴식 공간도 조성됐다.

이번 부스 운영은 최근 러닝이 새 문화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스포츠를 매개로 글로벌 통합 브랜드 '한국'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국타이어는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신탁부동산 체납 관리비 누가 낼까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A는 상가 여러 호실에 대해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신탁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신탁회사에게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에 따라 상가관리단은 신탁회사에게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기간 중의 체납관리비와 연체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위 담보 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보존, 유지, 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신탁재산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러한 경우 상가관리단은 위 신탁계약 조항에 따라 신탁회사에게 체납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위탁자의 성명 등 신탁조항 등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2012. 5. 9. 선고 2012다13590)은 “위의 규정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2022. 4. 22. 선고 2021나40098)은 위 대법원 판결을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의 일부가 됐으므로, 피고 신탁회사는 이 사건 관리비 납부의무의 주체가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라고 원고 관리단에 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 상고심은 달리 판단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대법원은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해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점

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돼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후 대법원은 유사사건에서 또다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다285639 판결). 대법원은 두 판결에서 모두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해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 반면,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해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국내 해치백 시장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기자 수첩

양성운
(산업부)

글로벌 해치백 시장의 대표 주자인 폭스바겐과 푸조가 골프와 308 모델을 출시하고 동남아 명맥이 끊겼던 국내 시장에서 흥행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두 업체 모두 해치백 시장 공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략에서는 완벽한 차이점이 있다. 폭스바겐은 과거 명성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 반면 푸조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 흐름에 맞춰 ‘친환경차’라는 무기를 들고 왔다.

폭스바겐은 과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이른바 ‘디젤게이트’를 대응하면서 한국 소비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조차 하지 않아 공분을 샀다. 당시 국내 시장

을 이른바 ‘디젤차 떨어 시장’으로 전락시켜 한국 소비자만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도 국내 출시한 골프는 디젤 모델이라는 점은 폭스바겐이 바라보는 한국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관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푸조는 준중형 해치백 ‘308’의 스마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내 출시했다. 엔진 부하를 줄이기 위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기존 MHEV와 달리 전기로만 주행 가능한 차별화된 ‘스마트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추고 있다. 특히 푸조는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출시와 함께 도입된 위탁판매 시스템의 정착 및 고객과의 신뢰 구축 의지를 표명하고자 ‘안심 가격 보장제’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차량은 가격 면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폭스바겐은 골프의 가격을 프리미엄 트

림 4007만원, 프레스티지 트림 4396만원으로 책정한 뒤 출시 기념으로 차량 등록비 200만원을 지원하며 3000만원대 후반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전략이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블로그에서는 폭스바겐 판매 딜러라고 소개하며 골프 가격을 트림별 3900만원~4300만원으로 출고가 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가격 정책을 올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푸조는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국내 출고가를 399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프랑스 대비 22%, 영국 대비 34%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들과 가격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본사와 협의 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출시하는 모습이다.

수입차 업체 대부분 본사 정책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본사를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28일 (음 4월 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앞만 보고 달리니 시야가 좁다. 48년생 기대를 접으니 오히려 편하다. 60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들의 덕은 잊는 법이니 비워라. 72년생 오후에 검은 옷 입을 일이 생긴다. 84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37년생 서북 방향에서 과거의 귀인이 다시 찾아온다. 49년생 기대를 접으니 결과에 감사. 61년생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가져온다. 73년생 동업자에게 믿음을 갖고 출발해보자. 85년생 뿌린 대로 갚으니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38년생 우물가에서 송농 찾듯이 서두르지 마라. 50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62년생 부동산 매매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살펴라. 74년생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자금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86년생 새로 만나는 사람을 조심.



39년생 오후에 차량안전에 주의. 51년생 더 노력해야 개선된다. 63년생 주변의 물건을 정리하니 산만한 마음도 정리. 75년생 동창회에서 만난 어려운 친구를 생각하여 베풀라. 87년생 나의 결정을 찾는 것도 사회생활에서 중요.



40년생 신용으로 마음을 움직여라. 52년생 불평보다는 상대방 처지에서 이해하라. 64년생 이금심도(以琴心挑) 하듯 취미생활을 하자. 76년생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인색하지 마라. 88년생 한발 물러서서 양보하면 보인다.



41년생 주변과 대화 시 언제나 겸손하여지자. 53년생 서두르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 궁색하다. 65년생 뱀뱃한 태도는 삶이 힘들어진다. 77년생 인정은 변하기 쉽고 세상의 도는 엄하다고 했는데. 89년생 하루의 계획은 이른 아침에.



42년생 근면하고 겸손한 배우자는 인생의 선물. 54년생 급할수록 돌아가서 내실을 찾자. 66년생 자랑보다는 상대가 배고플 때 배려라. 78년생 활력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을 검사해보자. 90년생 말을 잘하는 것도 기술이니 습득하도록.



43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하니 승부사이다. 55년생 아침부터 순조로운 하루로 즐겁다. 67년생 가정에서 부화부순(夫婦不睦)해야. 79년생 삼재이니 술자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91년생 잘못된 이상의 만남으로 양다리 되지 말아야.



44년생 지나치게 겸손해도 실례가 될 수. 56년생 지인과 대인관계를 살펴라. 68년생 새벽에 일어나니 주변이 꽃동산이다. 80년생 거울은 혼자서는 울지 않으니 이기심을 버려라. 92년생 내 뜻대로 되지 않으나 양보하게 되면 일이 풀린다.



45년생 외국어 공부로 미래를 대비하라. 57년생 친구 만나 의외의 지출이 많다. 69년생 사방에서 운이 열리니 다시 힘을 내자. 81년생 투자에 독단적인 결정은 손재수를 부른다. 93년생 남을 원망하지 마라! 부족한 것은 나의 탓이려만.



46년생 아이디어로 지출을 줄인다. 58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홀하지 마라. 70년생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82년생 꿈꾼다고 다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산업을 갖는 것이. 94년생 고집부리면 아군이 적군으로 돌변 된다.



47년생 이루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59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71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얻지 못한다. 83년생 재혼이 어려운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95년생 삼재이니 삼재풀이도 하고 훈훈한 인심을 이어가자.



김상회의四季

가난의 비용

가난의 비용? 가난하다는 현상에도 비용이 드는가. 잘 살펴보니 효용의 가치를 높이는 합리적인 소비 원칙을 지적해 본 것으로 해석된다. 행동경제학에서 주장된 ‘가난의 비용(The Cost of Being Poor)’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고품질의 내구성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가격이 비싸 상대적으로 저가의 상품을 사게 된다. 저가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질도 떨어지고 내구성도 낮다 보니 제품을 더 자주 사게 된다고 한다. 저가의 제품을 여러 번 사들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당한 가격의 내구성 좋은 제품을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란 논리다.

행동경제학이라는 거대한 용어를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집단의식이나 심리를 경제비용 측면에 접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소비 생활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은 가난으로 이끈다는 뜻에서 ‘가난의 비용’이라 칭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말 이론적 희론이라 느껴진다. 당장 내 수입이 쥐꼬리여서 미래 경제 효용까지 생각해 가며 지출할 형편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미래 경제가치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우선, 불필요한 물건들을 쌓아 놓지 말라는 것이다.

오래되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언젠가는 쓰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지만 실제로 1~2년 사이에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들을 끼고 있는 것이 더 손해다. 서울 같은 곳은 평당 삼천에서 오천만 원 정도는 하는 시세인데, 여기저기 오래된 물건을 보관하느라 차지하는 공간이 한두평은 넘지 않을까?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몇천만원을 주고 끼고 있는 셈인데 왜곡한 주거 환경을 방해한다. 나중에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기도 힘들다. 버리지 못하는 것도 병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6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6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전, 자율·책임경영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 기관 도약

7개 출자회사 ‘자율·책임경영’ 협약
이사회 중심 독립적 권한 보장 방침
김동철 사장 “책임지는 문화 정착”

한국전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전은 지난 24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캡코이엑스, 캡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명확한 경영 목표와 합리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OECD는 2024년 ‘공기업 지배구조



한전은 지난 24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캡코이엑스, 캡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7개 출자회사와 함께 자율·책임경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기업의 효과적 인 소유권과 지배구조 체계에 관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면서 책임성 있는 출자회사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경영 자율성과 이사회 독립성 원칙을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실질적으

로 적용한 국내 첫 사례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돼,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계기로 한전은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출자회사 사장에게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출자회사 사장은 자체 경영목표 설정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경영을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임기 중 해임, 성과 기반 보상과 임기 연장 등 명확한 책임 규정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특히,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 차등 보상과 함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율경영’ 체계를 명확히 했다.

김동철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며 “이번 협약은 각 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향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약속이므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체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나아가 국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도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협, 美 유통사 협력 확대… 농식품 수출 박차 aT, 전통식품·술 산업 활성화 나선다

‘시카고푸드·H마트’ 등 협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현장 경영

농협중앙회가 최근 미국 현지 주요 유통사들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잇따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 경쟁력과 점유율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MOU 체결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 중·남부권 물류 인프라를 갖춘 ‘시카고푸드’ ▲미주 최대 한인 유통망을 보유한 ‘H마트’ 등과 협력해 현지 핵심 유통사와 접점을 넓히고 권역별 유통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난 17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강호동(가운데) 농협중앙회장이 미국 뉴저지 소재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열린 ‘한국농협 농식품 특판전’ 행사장을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시카고푸드를 초청했다. 강호동 농협 회장과 서종민 시카고푸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공동 마케팅 ▲유통

공급과정 최소화를 위한 직납 체계 구축 ▲미 중부권 유통망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또 H마트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농협 특판전’을 개최했다. 쌀 가공식품·장류·두유 등 다양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밥 짓기 체험과 시식 등 소비자 체험형 마케팅 행사도 열었다. 강 회장은 직접 행사장을 찾아 현지 고객의 반응과 판매동향을 살폈다.

강 회장은 “현지 유통사와의 협력은 단순 수출 목적을 넘어 농협과 한국의 농식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해외시장에서 K-푸드의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두산·식품명인협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두산, 대한민국의 식품명인협회와 손잡고 ‘전통 식품 및 술 산업’ 소비기반 확충에 나선다.

27일 aT에 따르면 세 기관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두산타워에서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틀 3곳은 ▲전통식품과 전통주 판로 확대 및 홍보 강화 ▲지역 농산물 소비와 국산 원료 사용 촉진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 농업 생태계 보호 등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aT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두산이 운영하는 친환경 소비 플랫폼인 리즌마켓과 연계해, 전통식품과 전통주의 판매 및 마케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3곳은 MOU에 따른 첫 행보로 지난 25~27일 사흘간 두타몰 야외광장에서



홍문표(오른쪽 2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지난 25일 ‘전통식품 상생협력 소비자 체험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aT

‘전통식품 상생협력 소비자 체험행사’를 열었다.

홍문표 aT 사장은 행사장을 찾아,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을 넓히고 전통식품이 일상 속에서 더 가까이 소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식품이 국내외 소비자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잡월드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달성

기재부 공공기관 조사… 92.4점 획득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기획재정부 주관 ‘202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잡월드는 고객만족도 지수 92.4점으로 2012년 개관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 기대에 부응하는 직업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부, 매주 수요일 ‘일자리 톡톡!!’ 진행

청년특화 프로그램 등 제공

고용노동부는 최근 어려워진 청년취업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주요기업의 인재상과 직무 등을 재직자에게서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취업준비 콘서트 ‘일자리 톡톡!!’을 매주 수요일 시리즈 형태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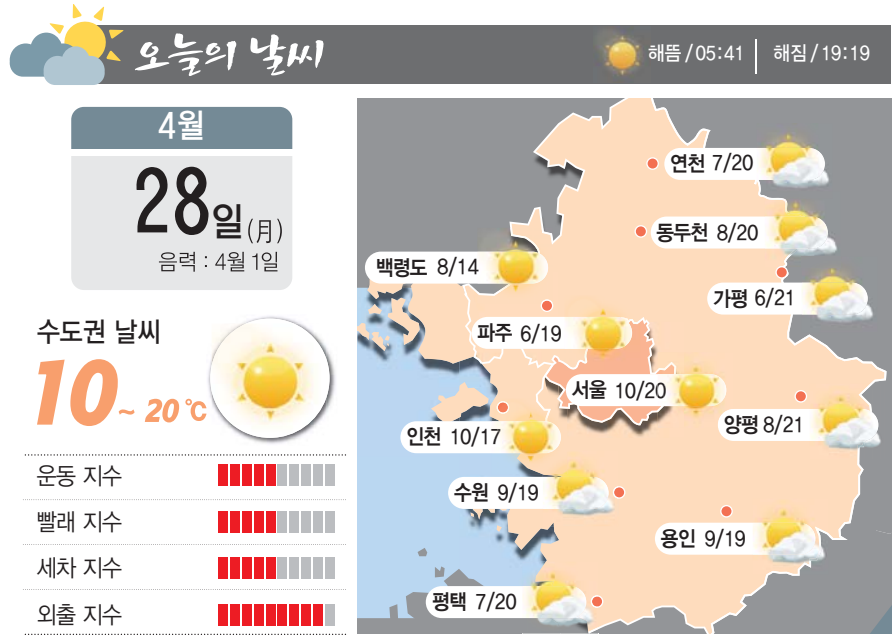
취업준비 콘서트는 하나은행(4월9일)을 시작으로 CJ올리브영(4월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5월12일), 넷마블(5월14일), 현대차그룹(5월28일), 카카

오/NHN(6월20일), 이마트(6월25일), 구글코리아(7월2일) 등 순으로 예정돼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반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보 탐색과 진로 선택을 하고, 전략 중심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청년특화 프로그램 등도 사전예약 방식으로 제공한다.

사전 예약은 고용24에 로그인해 취업지원(취업지원역량강화), 프로그램신청,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선택 후 해당 청년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트럼프, 교황 장례식 후 푸틴에 강력 경고…“전쟁 중단 생각 없는 듯”
▲ 트럼프 “美 없었으면 운하도 없다”…파나마·수에즈 무료통행 주장

/사진 뉴시스

▲ 이창용 “다른나라 관세 낮춰도 리스크 줄지 않을 것…美中 타협해야”
▲ 한미 통상 실무협의 이번주 본격화…안덕근 “신중하게 협의 진행”

▲ 미-이란 3차 핵협상 종료…이란에선 폭발사고로 500명 이상 다쳐
▲ 팀코리아, 내달 체코 원전 최종 계약…빠르면 7월 늦어도 22일 승부본다



정동닷컴 韓 상륙
e커머스
지각변동 오나
L1

metro®

Life

유한화학
화성공장 증설 완료
미래 성장동력으로
L2



“생존 위해 콘텐츠 기획… 쿠폰·축제로 시장에 활력을”



새벽을 여는 사람들

신영시장 상인회장

김 동 용 씨

“상인회장이 한가해지면 한없이 한가할 수 있지만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 끝이 없다. 시장에 관심을 갖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찾고 다른 시장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워야 한다.”

김동용 신영시장 상인회장(65)은 시장에서 일한 지 올해로 32년째다. 과거 신영시장이 가로정비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시장 상인과 정부 간 마찰이 생겼는데 일선에서 조율을 맡은 게 시작이었다. 상인들이 힘을 합쳐 원하는 바를 끌어냈다. 그가 시장 일에 푹 빠지게 된 계기다.

신영시장은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전통 시장 17곳 중 6번째로 규모가 크다. 연면적 4520㎡ 규모로 점포 101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먹거리부터 수산물, 육가공류 등 다채롭다. 대통령상을 3번이나 받았으며 최근 수상은 지난 2023년에 받은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표창’이다.

◆ 신영시장의 자랑, ‘쿠폰’과 ‘편의성’

김 회장은 신영시장의 키워드를 두고 ‘비교 불가’라고 했다. 신영시장만의 색깔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디지털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편의성이다. 신용카드 결제도 문제없다. 고객이 신용카드를 내밀더라도 상인들이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받아준다. 앞으로는 QR코드 결제도 활성화하려고 한다.

그는 “신영시장이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고 있다”고 했다. 동네에 시장 3곳이 밀집했으며 불과 1km 거리에 대형마트도 있다. 물건의 질이 나쁘면 손님의 발길이 끊기기 딱 좋은 조건이다. 아울러 ‘서민 밀집구역’에 있는 만큼 생존을 위해선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품질과 가격으로 대결해야 한다. 재료를 사서 집에서 요리하는 손님을 끌어들이어야 하는 것.

‘쿠폰사업’도 신영시장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대형마트에서는 물건을 사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경쟁을 위해선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고 봤다. 쿠폰은 5000원에 한장씩 지급한다. 16장을 모으면 1000원짜리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며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쿠폰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위조도 불가능하다.

쿠폰은 신영시장 축제 때 효자 역할을 제대로 한다. 50장을 모으면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서다. 경품은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2만원짜리가 70%, 1만원이 20%, 5000원이 10%다. 지난해 축제에는 시작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서 대



김동용 신영시장 상인회장.

/김정산 기자



지난해 신영시장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서 대기 하고 있다.



김동용 신영시장 상인회장이 지난해 축제에서 사용한 경품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신영시장만의 특성 맞춰 콘텐츠 기획
시장 생존방안 강구… 활성화 앞장

합리적인 가격에 고객 편의성 강화해
카드 결제는 물론 QR결제 도입예정
적립금·경품 혜택 ‘쿠폰 사업’ 운영도

전국 상인회 돌며 ‘시장 살리기’ 강의
위생 관리, 투명한 예산 운영은 ‘필수’
상인들 함께 소통하며 위기 극복해야

기했다.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그는 시장이 생존하기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선 누군가 희생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지에 있는 유명한 시장이 우선 시행한다고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시장에 맞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김 회장은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일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한다. 성실함은 기본이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기획을 해야한다”고 했다.

◆ 내수침체 “소통으로 이겨내야”

김 회장은 올해 시장 전반적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고 걱정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했던 영업시간이 오후 8시로 축소됐다. 겹약재로 내수 침체도 장기화 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소비심리가 쪼그라들었다.

한파가 길어질수록 성실하게 생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정부사업을 찾아서 유치해 소비자를 끌어들이야 한다는 것. 상인회장은 물론 상인들이 실패 없는 이유다. 기본적으로 상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다. 상인회장은 좋은 사업을 잘 고르고 상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한때는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매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제는 상인들이 믿고 맡겨줘서 감사한 마음이다.

그는 독단적으로 사업을 벌리기 보단 상생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상인들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문객이 저렴하게 물건을 사야 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지난 명절에 온누리상품권 1억5000만원을 가져와 모두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어르신을 위한 모바일기기 사용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로 결제하면 명절에는 15%, 평상시에는 10%를 할인한다. 80~90살 어르신도 할인해 준다고 하면 열심히 배운다. 상인회 차원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신영시장은 현금이 필요 없는 시장이다.

김 회장은 “시장이 현금만 고집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장사를 하려면 항상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상인들에게 신용카드 받아도 세금 많이 내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 전통시장, ‘특성에 맞춰 성장해야’

김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의 확실적인 운영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맞춰야 한다”면서 “상인회장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선택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에 있는 상인회를 다니면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그는 “시장이 어려워지는 가장 큰 문제는 현 상인회장과 전임자의 분쟁으로 쇠퇴하는 시장에서 반드시 발생한다”면서 “상인회장은 상인들에게 충분히 사업을 설명하고 전임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손님이 없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다”면서 “시장에는 물건 구매자도 오지만 관광객, 외지인의 발길도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풍부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의 위생도 중요하다. 평상시 위생은 기본이고 축제 때도 청결함을 유지한다. 지난해 신영시장 축제에 1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거리에서 맥주를 마시고 즐겼지만, 쓰레기는 단 80t만 배출했다. ‘쓰레기 없는 거리’를 콘셉트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상인회장의 투명한 예산 운영은 필수다. 상인들은 돈과 가까운 직업이다. 투입한 자금 대비 낮은 질의 축제가 이뤄지면 의심한다. 그는 물품 내역 대장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상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김 회장은 “시장의 흥행은 상인회장의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소통과 함께 청렴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이 발전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김선빈 결승타·정해영 7세이브…KIA, 이틀 연속 선두 LG 제압
▲KIA, 또 부상 악재…이번엔 나성범 종아리 부상 이탈
/사진 뉴스스

▲K리그1 서울, 2025~2026시즌 ACLE 플레이오프 확정
▲대한체육회, 생활체육대축전서 동호인과 소통…“실질적 지원 방안 강구”

▲국립합창단, 7월 일본서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음악회
▲국립민속국악원, 어린이날 ‘별이와 무지개다리’ 무대에

LG와 함께할 가슴 뛰는 미래

AI,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소중한 시간을 보다 즐겁고 의미 있게 쓰는 미래

고객의 시간 가치를 높이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LG**